



“경제위기 관리 ‘도민행복’에 초점 맞춰야”

안희정 지사, 경제상황 점검회의서 진단·처방체계 고도화 당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회계감사 강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남 경제위기 대응시스템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관리의 목표는 도민의 행복에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같은 발언은 충남도가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 주재로 도의원,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밝힌 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충남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 중인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중간보고 △최근 충남경제상황 진단분석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2015년 시작해 2018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경제 분야

지역단위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1차년도인 지난해에는 충남경제 진단을 위한 정량적 접근방법인 ‘충남조기경보지수’를 대내외 여건 부문, 고용여건 부문, 핵심제조업 부문으로 구성 ⍉개발했다. 2차년도인 올해에는 정량적 접근방법인 조기경보지수를 부동산 부문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동향, 기업 CEO 인터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정성적 진단방법인 ‘모니터링’과의 결합에 중점을 두고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은 경제관 건강검진에 해당한다”면서 “이 시스템을 통해 지역 경제를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왜곡되거나

막힌 곳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지사는 “무수히 많은 경제관련 정보를 가운데 어떤 기준에 따라 위기를 인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관리의 목표는 도민의 행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도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도민의 일지와 고용문제를 개선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안 지사는 올해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방향으로 경제상황 진단 및 대응체계를 고도화 시키는 동시에 정확한 처방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 마련을 주문했다.

안 지사는 “우리 산업계가 현상 유지 수준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지역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수단을 마련하는 데 현장과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충남경제상황 진단분석 토론회에서는 최근 ‘정상’ 수준을 보이고 있는 충남경제가 경기 확장 국면에 탈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충남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 경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차세대 전자 패키징 시장이 확대되면서 충남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신규 입지 수요발생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개진됐다.

안희정 지사는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관리의 목표는 도민의 행복에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같은 발언은 충남도가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 주재로 도의원,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밝힌 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충남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 중인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중간보고 △최근 충남경제상황 진단분석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2015년 시작해 2018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경제 분야

안희정 지사는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관리의 목표는 도민의 행복에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같은 발언은 충남도가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 주재로 도의원,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밝힌 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충남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 중인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중간보고 △최근 충남경제상황 진단분석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2015년 시작해 2018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경제 분야

안희정 지사는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관리의 목표는 도민의 행복에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같은 발언은 충남도가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 주재로 도의원,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밝힌 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충남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 중인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중간보고 △최근 충남경제상황 진단분석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2015년 시작해 2018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경제 분야



“지역 중심 국·공립대 발전 지원해 달라”

한밭대학교 등 19개 대학총장들 국회의원들에게 건의
한밭대학교는 송해영 총장이 지역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주관으로 22일 오전 11시 30분 전국 19개 회원대학 총장들과 함께 각 대학이 소재한 28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국회 본관 3층 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범계 의원, 조승래 의원 등 국회의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중심국·공립대 총장들은 새 정부의 ‘지역거점 국립대와 지역 강소대학 집중 육성 공약’과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총장들은 지역별로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중심국·공립대학이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중심국·공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10월 세종시·아산테크노 아파트 3875세대 입주 할 듯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 7.3만세대 대비 39.4% 증가한 10만2238세대 2017년 9~11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만3184세대(전년동기 대비 37.7% 증가), 지방 5만9054세대(40.6% 증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17년 9월 광주태전(2372세대), 하남미사(1401세대) 등 1만224세대, 2017년 10월 위례신도시(2820세대), 수원호매실(1452세대) 등 1만8237세대, 2017년 11월 인천송도(2597세대), 용인역북(2519세대) 등 1만467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2017년 9월 부산장전(1938세대), 부산신항만(2030세대) 등 2만2146세대, 2017년 10월 세종시(2524세대), 아산테크노(1351세대) 등 1만6121세대, 2017년 11월 부산사하(946세대), 충주기업도시(2378세대) 등 2만787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597세대, 60~85㎡ 6만4282세대, 85㎡초과 7359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2.8%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8만1115세대, 공공 2만1123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김태선 기자

문 대통령, 정상외교 재시동... 내달 러시아·미국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러시아와 미국 방문 등을 계기로 하반기 정상외교에 나선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먼저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포럼에서 기초연설을 하는 데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같은 달 18~22일 3박 5일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유엔 총회 개막식은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1월 10~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을, 13~1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필리핀을 각각 방문하는 등 다자 정상외교에 나선다. 김태선 기자

현대파워텍의 변속기 기술은 인간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속기 역시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왔습니다. 현대파워텍의 변속기가 탑재된다는 사실은으로도, 자동차의 안전과 통행에 대한 신뢰를 주고, 동력전달의 손거울을 느끼는 행복한 자동차 여행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현대파워텍의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개헌 '4년중임 대통령 48%' > 분권형 30% > 내각제 14%

<KSOI>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맞아 개헌의 핵심내용 대해 조사 결과

한국사회 여론연구소(KSOI)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개헌의 핵심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임기중임'이 가장 높은 48%로 나타났다. '4년 중임'이 29.8%로 2순위 나타났다. '의원내각제'는 13.6%에 불과했으며, '모름/무응답'은 8.9%

로 조사되었다. '임기 단축없는 4년 중임 대통령' (47.7%)은 연령별로 30대(56.6%)와 20대(53.4%)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이 49.9%,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8.3%),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58.8%)과 더불어민주당(53.9%)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헌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확대 등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개헌의 중심내용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58.2%로 '권력구조 개편이 중요하다' (36.6%)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58.2%로 18일~1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8%, 유선 20.2%전 화면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며, 응답률은 10.3%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1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8%, 유선 20.2%전 화면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며, 응답률은 10.3%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 대통령 기자간담회 이후 이틀(8월 18일~19일)에 걸쳐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면 어떠한 권력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질문에 '임기 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29.8%로 2순위 나타났다. '의원내각제'라는 의견은 13.6%에 불과했으며, '모름/무응답'은 8.9%

'분권형 대통령제' (29.8%)는 연령별로 50대(35.9%), 지역별로 서울(34.4%), 직업별로 가정주부(36.3%), 정당지지층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44.7%)에서 선호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의원내각제' (13.6%)는 50대(15.1%), 광주/전라(19.2%), 기타무직층(18.2%), 국민의당 지지층(17.6%)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58.2%로 18일~1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8%, 유선 20.2%전 화면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며, 응답률은 10.3%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1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8%, 유선 20.2%전 화면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며, 응답률은 10.3%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장, 2017을지연습 참가자 격려. 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장은 22일 대전시청과 대전시교육청을 방문하여 을지연습 진행 상황을 참관하고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김경훈 의장은 "올해는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각종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인성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실제와 같은 철저한 훈련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기구 의원 '중부해경청 당진 유치' 건의

21일, 국회에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면담

중앙행정기관 전무한 당진, 지역균형발전 위해서도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중남 당진)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을 만나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의 당진 이

전을 당부하며 중부 해양경찰청 당진 유치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어기구 의원은 "충남 서북부 최대 도시인 당진시에 중앙행정기관이 전무한 당진시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부 해경청 이전 시 당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어기구 의원은 "충청 북단에 위치한 당진시는 인천, 경기, 충청지역을 관할하는 중부 해경청의 최적지"라고 지적하고, "당진시도 중부 해경청이 당진으로 이전을 결정하면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

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해경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어 감사하다"며, "중부 해경청 이전 문제는 분청 이전 등과 함께 검토되고 있는 문제로 여러 가지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당진시의 요청 내용도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해양경찰청장으로 새롭게 임명됐다. 어기구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20일에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심보균 차관을 면담하고, 중부 해경청 당진 유치를 위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택시·버스승강장 쉼터 및 캐노피 설치' 확정

이명수 의원, 올해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간)이 매일 아산-서울(용산)을 기차로 출퇴근하면서 겪었던 용산역의 「고객편의시설」에 대한 불편사항을 한국철도공사에 이 하 코레일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택시·버스승강장 쉼터(shelter) 및 캐노피(canopy) 설치」 추진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

이명수 의원은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는 날에는 비를 맞으면서 택시 또는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 용산역의 경우, 비·눈·찬바람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고 하면서, "이에 택시승강장 2개소, 버스승강장 쉼터 2개소 설치를 올해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용산역 광장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고객편의를 제 공하고, 캐노피 상부에는 휴게·이벤트 공간을 조성하여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년

도 말까지 설치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코레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명수 의원은 "하루 평균 용산역을 이용하는 약 11만명(2016년 기준)의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장마철 비와 겨울철 찬바람을 막아주는 대중교통 쉼터가 하루빨리 마련되어 앞서는 행정의 표본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용하는 시민들도 소중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농피아·민간 인증업체 유착관계, 반드시 척결해야"

박원주의원, 인증기준 위반한 친환경농가 37곳 달해

산란계 농가 전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친환경농가의 68%가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포진한 민간인증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농가의 안전성과 소득향상에 기여해야 할 농관원 출신들이 오히려 친환경 인증업무의 부실성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계란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을 촉발시킨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원주 의원, 친안들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란계 농가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기준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인증기준을 위반한 친환경농가는 37곳에 달한다.

이중 농피아가 포진한 민간인증업체가 인증한 친환경농가는 25개 농가로 전체의 68%에 해당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세 곳 중 두 곳은 농피아 업체가 인증한 업체다. 특히 A업체의 경우 7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B업체 5농가, C업체 4농가 등 농피아 업체가 인증한 3곳을 비롯해서 나머지 6개 업체들은 각각 2곳과 1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민간인증업체의 상당수가 농관원 출신 퇴직공직자로 채워졌다.

농식품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관원 출신이 민간인증업체 6곳의 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작년 말 기준으로 민간인증기관 64개 업체에 소속된 심사원 608명 중 농관원 출신 80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고, 이 중 E업체의 경우 전체 35명의 심사원 중 24명(68.6%)이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주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농피아에 장악된 인증업체들의 부실관리로 인해 친환경농가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농관원과 민간인증업체간의 유착관계를 척결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안=김정환기자

정용기 의원 "회덕IC신설 사업 중단없이 추진돼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은 22일 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현안보고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회덕IC신설, ▲도시재생사업, ▲갑천고속도로도로 통행료 폐지 등 지역현안과 관련된 날카로운 질의를 했다.

첫 번째 질의에서 정 의원은 "새 정부의 재정배분 조정으로 SOC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15% 이상 감소되는데, 거시경제차원에서 작년도 경제성장률의 50% 이상을 건설투자 비중이 담당하는 등 건설경기 내지는 건설장세가 우리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줄 것"이라며, "국회적으로는 노후 SOC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투자가 타이밍을 놓치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건설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복기자

청양군의회, 의원간담회

통한 의견소통

청양군의회 의장 이기성은 22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 산업문화철도(보령선)행정협의회 규약 승인 건 포함 총 13건의 추진계획 및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주요 내용으로,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행정협의회 규약 승인 ▲제3기 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 ▲2017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청양군 전물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립전 예산편성-재난현장 대응 표본화 시범사업 ▲성립전 예산편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지천) ▲청양군 「청양시네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청양시네마」운영계획안 ▲청양군 천장호 주차장 부지매입 건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추문화마을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반환금 지급 ▲2017년도 농식품 창업 및 육성사업 공모 계획 ▲제18회 청양고추·구기자 축제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성과별 주간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양=정상범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정진석 의원,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제청거부권 제한해야

공주대 총장 공석 장기화 해결 교육부에 강력요구



정진석 국회의원(공주 부여 청양)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립대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제청에 대해 기초적인 신원조회 수준을 통한 범법행위 적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의 장기화를 해결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제청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대학에서 추천한 1,2순위 후보자를 모두 제청 거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해당 후보자에게 제청거부 사유도 통보하지 않아, 특히 각 대학의 1순위 후보자들은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주대의 경우 해당 1순위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교육부의 항소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2년 가까이 판결을 보류하고 있다.

총장 공석상태 장기화에 따라 각종 사업추진과 교수채용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타 대학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렇게 총장 공석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자발적인 해결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1심, 2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감에 따라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의 장기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국립대총장제청 거부권을 제한해, 기초적인 신원조회 등을 통한 범법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는 공주대를 비롯한 4개 대학의 총장 공석사태 장기화 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국립대 총장 임명 절차는 각 대학이 직선, 또는 간선에 의해 1, 2순위 후보자를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해 제청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 개최

돌발산림해충방제, 계란산출제 관련 긴급 현안청취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는 22일 간담회장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포함한 서산시의 주요안건을

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산림해충 방제에 관한, 장기적인 시각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국내산 계란산출제 검출 관련,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논의한 주요 안건으로는 ▲2017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안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제정안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이날 제출된 안건들은 오는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2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후 결정 된다.

서산=김정환기자

서형달 의원,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운동장 만들기 앞장

조례안 대표 발의



운동장으로 조성하고 최최의 상대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학교운동장

을 대상으로 유해성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공개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운동장은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친환경운동장심의회(의사)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하는 등 소재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 의원은 "학교운동장은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놀이와 휴식 등을 즐기는 공간"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8월 31일 교육위원회의 9월 7일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우남건설, '세종 우남퍼스트빌 2차' 25일 견본주택 오픈



세종시 1-1생활권 M6블록 입지, 총 290세대 · 전용면적 107~120㎡ 중대형 구성

우남건설이 세종시 1-1생활권 M6블록에 '세종 우남퍼스트빌 2차' 모델하우스를 오는 25일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6개동, 총 290세대 규모, 전용면적 107~120㎡로 지어진다. 면적별 세대수는 ▲ 107㎡ 184세대 ▲ 117㎡ 88세대 ▲ 120㎡ 18세대 등이다. '세종 우남퍼스트빌 2차'는 8.2부동산대책 이후 세종시에서

첫 분양되는 단지로 주목 받고 있다. 세종시는 이번 대책으로 투자수요들이 겹치면서 실수요자의 당점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그 동안 비늘구멍에 가까웠던 세종시 아파트 청약률로 내 집 마련을 포기했던 실수요자들은 이번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 더욱이 이 단지는 전 가구 전용 85㎡ 초과 주택형 공급으로

100%가점제가 아닌 50%추첨제와 50%가점제로 분양되는데 다 청약 1순위의 자격조건이 강화되기 전 세종시의 마지막 분양 단지라 많은 청약통장 보유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 학세권 · 공세권 갖춘 '살기 좋은 아파트'
이 단지는 우수한 교육환경과 대형 공원을 갖추고 있어 세종

시 입성을 노렸던 실수요자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단지 옆에 약 32만㎡(약 10만여 평)에 규모 이르는 '고운뜰공원'은 입주민에게 쾌적한 전망과 휴식을 선사할 것이다. 여기에 단지가 위치한 1-1생활권은 세종시 내 가장 높은 녹지비율로 주거 쾌적성이 기대되고 한옥과 유럽풍의 단독주택이 위치해 향후 세종시 부촌을 이룰 전망이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는 가락초, 두부중고, 고운고 등 9개의 초·중고 학교가 있고 세종시에서 선호도 높은 세종국제고와 과학예술영재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2020년에는 세종시립도서관도 준공될 예정이다.

교통 여건도 잘 갖춰져 세종시 내는 물론 서울, 대전 등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36번 국도를 이용한 당진-영덕고속도로 서세종IC를 통하면 인근 광역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2024년 6월로 개통시기가 앞당겨진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가까워 향후 서울까지 빠른 시간 안에 도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 전 세대 남향 배치, 와이드 테라스(일부세대) 특화 설계 적용

이 단지는 전 세대 남향으로 배치돼 풍부한 채광과 탁 트인 조망권이 확보된다. 평면도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4베이, 판상형으로 설계해 맞통풍과 일조권 확보에 신경썼다.

일부 세대는 와이드 테라스가 설계돼 입주민은 넓은 테라스 공간을 정원, 휴식공간, 파티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지 전체동의 1층에는 필로티가 있어 시원한 바람길과 더불어 보행편의까지 제공한다. 최대 107㎡에 이르는 동간 거리는 쾌적하고 여유로운 단지환경을 조성해 준다.

우남건설 분양 관계자는 "8.2 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세종시는 현재 미분양이 없고 정부부처 추가이전과 국회분원 이전, 행정수도 실현 등 대형 개발호재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청약경쟁률은 과거 대비 주춤할 수 있으나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당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우남퍼스트빌 2차' 모델하우스는 세종시 대평동 264-1번지에 위치한다.
분양문의 1588-8036



아산시 대한민국 국제관광 박람회 참가

24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홍보부스 운영... 타시·도 관광객 유치위해

아산시(시장 북기왕)가 아산의 아름다운 문화·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국제관광 박람회」에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약 130개 지자체가

철도역사 승강장조명 LED로 전면 교체

전기요금 연간 약 5억6300만 원 절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친환경 철도역사를 조성하고, 철도이용객들에게 밝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까지 전국 341개 철도역사의 승강장 조명을 LED(Light Emitting Diode)로 교체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노후화가 심한 수도권 전철승강장 용산역 등 14개 역을 시작으로 '19년까지 총 312억 원을 투자해 전국 341개 역의 승강장 조명등 14만6000개를 친환경 LED로 교체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LED조명 보급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단이 올해 기 확보한 24억 원의 예산에 추경예산 50억 원이 편성되어 이 사업이 '19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철도 승강장에 LED조명 설치가 완료되면 승강장 밝기가 약 30%이상 향상되고, 전기요금은 현재의 절반수준인 연간 약 5억6300만 원으로 절감되며, 연간 2302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철도공단 장형식 시설개발처장은 "전국 철도역사 승강장의 조명을 친환경 LED조명으로 대체해 정부의 LED조명 보급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이 사업을 '19년까지 마무리해 국민들이 쾌적한 철도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아산시는 '찾아가는 관광 홍보'의 일환으로 타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참가한다.

시는 관광홍보를 위해 홍보영상 상시 상영, 입장료 할인권 및 관광객자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산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신발을 던져 원하는 관광지를 맞추는 발길 따라 이벤트, 아산시 버스 즉석사건 이벤트, 온궁화장품 체험하기 등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상득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박람회가 아산시의 무궁무진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며, 아산시 홍보부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현대파워텍 희망출동 사업비 1억원 전달

서산시는 현대파워텍 문흥기 이사와 김창덕 사원대표가 서산시청을 방문하고 서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윤주문)에서 운영하는 '희망출동 1365' 사업에 1억 원을 지난 21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희망출동 1365는 2013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30여명의 시민들로 재능봉사단(회장 이영주)을 구성하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불편 해소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4천여 가구를 방문하며 간단한 집수리는 물론 전기점검, 보일러 수리 등 1만여건이 넘는 생활불편을 해소해, 지난 2013년 전국 자원봉사센터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현대파워텍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1억 원의 희망출동 1365사업에 기탁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논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 9억3100만원 부과 납부방법은?

오는 31일까지 납부... 고지서없이 CD/ATM기 납부가능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5만7천여건, 931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및 법인에게 회비적 성질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세대주 11,000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

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사업소를 둔 개인은 5만5000원이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roor.kr)는 물론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동장) 또는 신용카드로 쉽고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

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가상계좌, 인터넷, ARS 등 다양한 납부 편의 방법을 적극 홍보해 납내 정수율을 높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1~5)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보급종 봄감자·보리·밀 종자 신청하세요”

봄감자 오는 28일 까지, 보리·밀 9월 5일까지 신청

청양군은 2017년 생산된 정부보급종 봄감자 종자 6.9톤과 보리·밀 종자 519톤을 확보하고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봄감자는 오는 28일까지, 보리와 밀 종자는 내달 5일까지 거주 지역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공급되는 품종은 ▲터레이비에 강한

봄감자(수미) ▲내한성·내습성·내도박성이 강한 곱보리(올보리) ▲내도박성·보리 호위축병에 강한 쌀보리(재안찰쌀보리) ▲사료용인 청보리(영양보리) ▲내습성·내도박성이 강한 금강밀로 포장단위는 20kg이다.

공급 날짜는 봄감자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보리와 밀은 오

는 9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예정돼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보급종은 검사 규격을 통과한 엄선된 종자로 품종고유의 특성이 보존돼 있으며 병해발생이 적고 초기생육이 양호하다"며 "종자는 파종까지 서늘한 곳에 보관해 과습이나 통풍불량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양=정상범기자

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대전충남본부, 천안시 상동1지구 지적재조사측량 착수

한국국토정보공사(X·구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신윤식) 천안시사는 천안시 동남구청에서 발주한 상동1지구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위성(GNSS)측량 등

최첨단 기술 방식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신윤식 본부장은 "최첨단 측량기술을 활용한 원활한 재조사측량 업무를 진행해 토지경계 분쟁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가양1동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가양1동새마을금고(이사장 서영길)는 지난 21일 노래교실 회원 80여명을 대상으로 MG희망나눔 금융교실(강사-홍도동새마을금고 오지연 차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을 들은 노래교실 회원은 "강사님이 실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대

범까지 쉽게 알려줘서 꼭 필요한 강의였다"며 "자주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가양1동새마을금고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금융지식 전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사회공헌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열려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신종백, 이하 새마을금고재단)은 재단 사회공헌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2017년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사회공헌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아이디어 공모주제는 실현 가능하고

창의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 청소년 사회진출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사업, 취약지역 공동체 지원(경제 자립 지원)사업 분야로 나누어 모집하며, 참가자격은 사회공헌사업에 관심 있는 개인과 단체(기관)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방법은 오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메일(kkcf@kkcc.co.kr)로 접수하며, 심사를 통해 10월 중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수작(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작(3명) 및 장려작(5명)에게는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산시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열려

아산시는 청년을 위한,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이라는 주제로 청년 일자리·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아산시에 바라는 청년지원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단체로써 만18~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신청

서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을 선발한 뒤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최종 우수작을 선정한다.

본선 대회는 10월 13일 아산시청에서 개최되며 최종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시는 대회를 통해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스스로 원하는 정책 아이디어와 실행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접수는 내달 17일까지 아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asan.go.kr)에서 제안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정책기획담당관(041-540-21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원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순천향대, 남미 에콰도르 교내 창업기업 해외진출 현지 창업분야 CSR사업 본격 진행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가 남미 에콰도르에 교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현지 창업분야인 CSR(사회적기업책임)사업 진행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KOTRA와 공동으로 앞으로 3년간 에콰도르에 창업혁신센터 건립을 공적원조사업(ODA)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현지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KOTRA CSR(사회적기업책임) 프

로그래를 통해 교내 창업기업인 ㈜엔이바이오의 현지 진출을 추진 중에 있다.

순천향대는 교내 창업기업인 ㈜엔이바이오와 함께 에콰도르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액체 비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품사용 등 다양 적용법 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현지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에는 국내 농업관련 벤처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시, 국가 기준점 일제조사 완료

정확하고 효율적인 측량 성과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측량의 정확도 및 효율성 확보로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관내 국가 기준점 224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산 정상 또는 능선에 설치돼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 113점과 주요국도 및 지방도변에 설치돼 해발고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수준점 70점, GPS를 이용해 위성측량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통합기준점 41점이다.

시는 조사결과 훼손되거나 망실된 4점과 매몰된 1점에 대해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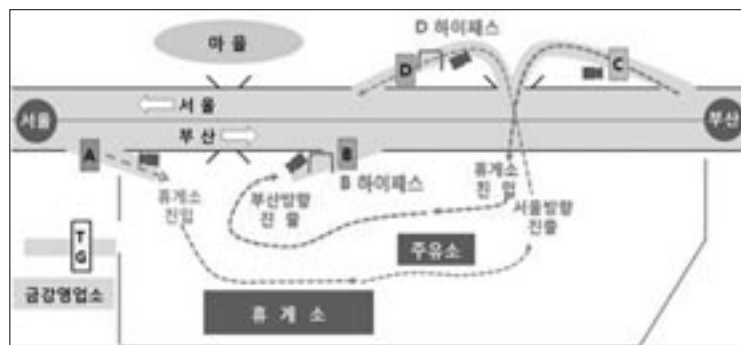
가기준점을 총괄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 정비할 예정이다. 국가 기준점은 국토관리, 지도 제작, GIS 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의 정확한 측량자료로 제공되며, 우리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물인 영향.

정진화 토지과장은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국가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국가기준점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금강휴게소에 무정차 회차시스템 도입

도공, 무정차 회차시스템 23일 오전 10시부터 운영



금강휴게소에 무정차 회차 시스템이 도입된 방향으로 돌아갈 경우 회차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멈출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내 회차 차량 수기검표소를 폐쇄하고 무정차 회차 시스템을 설치해 23일 오전 10시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금강휴게소 이용차량의 회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통행권이나 전자카드 이용차량이 금강휴게소에서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는 검표소에서 검표원에게 통행권이나 전자카드를 건네 회차 정보를 입력해야만 했다. 하지만, 무정차 회차 시스템을 통해 차량번호를 영상으로 촬영해 회차 차량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됐다.

도공 관계자는 "하이패스를 장착한 회차 차량의 경우 금강휴게소에서 중간정산 후 최종 목적지까지 잔액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중 부과하는 오해가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건강대 CK-1 STEM 사업단, 세종노인센터 지역봉사 건강대학교(총장 김희수)의과학대학 CK-1 STEM 특성화사업단에 소속된 직업치료학과, 인명광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에 교수와 학생 33명이 17일부터 18일까지 세종도덕노인복지센터에서 지역노인대상으로 한 보건교육·노년지역봉사를 진행했다.

야구팬들과 함께하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D-30기념... 엑스포 성공기원 시구, 인삼피자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지난 D-50기념 명동 프로모션에 이어「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기원 D-30 기념행사가 오는 8월 25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개막 30여일을 앞두고 대전·충남권 야구 경기 관람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고 사전 봄 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행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이동필 조직위원장과 허승욱 충남도정무부지사, 박동철 금산군수를 비롯한 충남도의회

엑스포지원특위위원, 금산군의원, 범군민지원협의회, 대전지역 금산향우회, 금산군 사회단체장, 홍보대사 및 홍보위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다.

본 행사는 오후 4시 30분부터 매표소 앞 야외무대에서 신인 여성 5인조 걸그룹 베베시스의 K-POP댄스공연을 시작으로 야구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참석 내빈들이 준비된 대형피자에 인삼이 풍부하고 커피로 잘라 손수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인삼피자'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

벤트로 '얼음 속 인삼을 구하라'를 진행해 팀별 1등에게는 인삼꽃주를 증정하고, 무대 옆 부스에서는 시원한 홍삼 슬러시 시음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한화이글스 KIA타이거즈와의 프로야구 경기에 앞서 이동필 조직위원장이 엑스포 성공기원을 담은 힘찬 시구에 나서 예정으로, 시구 모습은 SBS SPORTS를 통해 전국에 중계될 예정이다.

이동필 조직 위원장은 "이제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카운

트다운이 시작됐다"며 "지난 2006년과 2011년 두 번의 인삼엑스포 성공개최 경험을 토대로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최고의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2일간 '생명의 뿌리, 인삼(부제: 과학과 문화로 세계를 날다)'을 주제로 충남 금산군 인삼엑스포광장 일원에서 전시, 교육, 학술회의, 이벤트, 체험행사 등 대규모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금산=전성민기자

'새세 프로젝트' 역사 공주' 종료

사단법인 공주대 교육나눔(이사장 박상욱, 이하 교육나눔)이 충남평생교육진흥원 2017 온통 시민배움터 공모사업을 통해 운영한 '새세 프로젝트 역사 공주' 프로그램이 누적 참여 1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새세 프로젝트는 북한 이탈주민을 비롯한 전일 대학생, 다문화가정 등 공주시에 새 터를 잡은 새터민을 새주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7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6회차로 운영했다.

교육나눔은 이번 새세 프로젝트의 테마를 공주의 역사로 설정하여 지역 역사야기를 통한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각 회차마다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현장답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세한대, 경찰 소방 대학 공무원 증원 덕으로 '인기'

국민안전 전문가 양성하는 경찰행정학과, 소방행정학과 주목



최근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방침에 따라 공무원 관련 학과가 수험생들에게 함께 눈길을 끌고 있다.

발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요구에 발맞춰 전문적인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 경찰행정학과와 소방행정학과가 바로 공무원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목적이 뚜렷한 학과인 만큼 취업에 강한 세한대 경찰행정학과와 소방행정학과는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경찰·소방 공무원을 최다 배출했다.

이에 따라 학과 이름만 봐도 졸업 후 진로가 바로 예상되는 취업

이 잘되는 학과인 만큼 이 대학의 대표적인 특성화학과로 주목받고 있다.

우선 세한대 경찰행정학과는 경찰 직업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행사 사법기관과의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2017년 현재 졸업생 1,300여 명 중 경찰공무원 650여 명을 배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행정학과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2016년 교내 '세한폴센터'를 개소해 자전거순찰대, 사이버범죄 모니터링, 범죄피해자 지원, CPED활동 등 다양한 실무중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 30일 88명의 경찰행정학과 학생을 충남 당진경찰서 명예경찰로 위촉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당진=최근수기자

나고야의정서 발효... 산림청, 대책 마련 적극 나서

대응팀 구성·관련 법령 정비 등 적극 나서

최근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된 가운데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미생물과 동식물 등의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이용 절차와 이익 배분을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화장품·식료품·생물산업계의 경우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로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나고야의정서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 정비, 정보 제공 지원, 법률 자문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 업계 편의를 위해 산림생명자원 데이터베이스(DB)를 정비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생명자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업계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산림식물로부터 기능성 식물·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한 산림생명자원 소재자원 발굴

연구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향후 담당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과 주요 기능, 해외 유전자원 접근 절차와 이익 공유,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세계 각국이 생물주권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산림청도 산림유전자원 보존·이용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스마트폰 터치 없이 사람이 대화하듯 통역한다

ETRI 자동통역기술, ISO 국제표준 채택



스마트폰을 터치하지 않고도, 사람 간 대화하듯 자동 통역이 가능한 기술이 우리나라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에 채택됐다.

ETRI(한국전력 자동통신연구원)는 지난달 28일, 프랑스 파리 표준 협회서 개최된 국제 표준화 회의

에서 『제로 유아이(Zero UI) 자동통역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표준 채택으로, 기존 스마트폰 터치 기반의 자동통역기 사용모습이 제로 유아이(Zero UI) 기반 자동통역기술로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복기자

연구진은 이번 국제표준에 선정된 기술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주머니나 핸드백에 두고 블루투스를 활용, 헤드셋을 통해 통역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로 유아이(Zero UI) 자동통역 기술을 적용시, 사용자가 웨어러블 헤드셋 등을 착용한 후 말을 하게 되면 음성인식 스마트 폰으로 전달되어 통역되며, 통역된 음성은 상대의 스마트폰을 통해 헤드셋으로 전송되어 통역 결과를 들려주게 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자동통역을 할에 있어 더 이상 스크린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뜻에서 제로 유아이(Zero UI)기반 기술로 명명했다.

이정복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생 모집

배재대 평생교육원, 오는 30일 까지 모집

배재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김정현) 가정교육과 교수는 오는 30일 까지 산림교육전문가(유아 숲지도사)과정을 비롯한 61개 평생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평생교육원은 산림청 인증 국가 자격증을 부여받는 산림교육전문가 과정 40명을 모집하는 것을 비롯해 ▲생활·문화·교양 분야 15개 강좌 275명 ▲사진 5개 강좌 100명 ▲건강관리 12개 255명 ▲외국어 4개 80명 ▲컴퓨터 3개 120명 ▲음악 12개 240명 ▲자격증취득 10개 172명 등 모두 61개 강좌에 수강생 정원은 총 1280명에 달한다.

특히 2학기에는 자격증취득과정에 '영화인문학 전문강사'과정과 '영화인문학 전문강사'과정 등 8개 강좌가 새로 문을 연다.

이정복기자

'영화인문학 전문강사' 과정은 배재대 한국어문화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꿈꾸는 다락방 인문학연구소 대표 이선준 씨가 할자보다 영상에 민감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영화를 활용해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나는 트로트 노래교실' 과정은 트로트에 대한 이론적 고찰부터 시작해 기초 발성연습, 추억의 대중가요와 최신 트로트가요까지 트로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습과정을 15주간 진행한다.

'실버체육지도사' 과정은 고령화시대에 맞는 맞춤형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맨스 기법과 신체 스트레칭, 치매에 효과적인 뇌 운동 체조, 도구를 이용한 실버체육기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게 된다.

이정복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교육 3차 설명회

아산시,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 위해 개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과장 김민태)는 지난 21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절차 안내 및 건축·환경관련 법 설명 등을 실시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충남도청, 아산시 인·허가부서(건축, 환경), 건축설계사무소와 합동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에 350여명의 축산농가가 참석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일부 기계식 주차장 발빠짐·추락사고 위험 높아”

한국소비자원, 안전사고 위험 높아... 대책마련 시급



한발대, 창업장학금과 연계한 대학생 창업캠프 시스타 트립 개최 한발대학교(총장 송하영)가 창업친화적 학제 구축의 일환으로 창업장학금과 연계한 ‘대학생 창업캠프 시스타 트립’을 선보였다. 지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 동안 경기도 화성 YBM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창업캠프는 창업기적 실행력을 갖춘 도전적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주소방서, 국민행복 소방정책 자체 추진실적 보고회 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지난 18일 영성회의실에서 각 부서장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구현을 위해 국민행복 소방정책 자체 추진실적 보고회를 가졌다.



태안소방서, 통제단 지휘관 의사결정 훈련 실시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가 22일 대회의실에서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중 통제단 지휘관 의사결정 훈련을 실시했다.



심사평가원,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위한 을지연습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라는 슬로건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 국가비상사태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사·평가 업무 수행을 통한 변함없는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목표로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아산시, 학교·가정 밖 청소년 아웃리치 실시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는 지난 18일, 아산시 온양온천역 일대에서 아산시청 소년지원센터와 함께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지원을 위한 아웃리치(Out-reach)를 실시했다.



대전보훈청, 대전·세종, 충남·북 보훈단체장 간담회 실시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윤진)은 22일 서구 만민동소재 영기환정사에서 관내 대전·세종·충남·북 보훈단체장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따뜻한 보훈정책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도 늘어나고 있으나 주차시 이용자 발빠짐, 자동차 추락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14년 1월 1일~2017년 6월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접수된 기계식 주차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17건이며, 이 중 사망사고는 5건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경표이 사고가 다발하는 승강기식, 다층순환식, 평면양복식 등 기계식 주차장 3종 60기를 조사한 결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기계식 주차장 60기 중 15기(25.0%)에서 운전자 보행 경로 4cm 이상의 틈이해 ‘기준치 초과 틈’이라고 함이 발생하여 이 용자 발빠짐 사고 위험이 높았다. 기계식 주차장 출입문은 별도의 강도기준 부재로, 주차대기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차량 오작동시 차량이 추락할 위험이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기계식 주차장 60기 중 2기는 입고 대기 시 운전기가 최하층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문이 잠문 열린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하면 추락사고로 연결될 수 있었다. 조사대상 60기 중 52기(86.7%)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점검시 관

리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었다. 별도 출입문이 설치된 주차장 8기도 운행시 이용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기거나 사람이 감지하여 작동을 정지시키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어 안전사고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식 주차장 60기 중 22기(36.7%)는 조도(밝기)미달, 39기(65.0%)는 추락 예방표식 미설치, 12기(20.0%)는 신호장치 미설치 및 미작동, 15기(25.0%)는 짐을 쌓아놓는 등 기타 용도로 병행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초가 되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 17기(기계식주차장) 안내문 부착 위치 등에 명시된 필수안내 사항 4가지(차량 입고 및 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 기계식 주차장지 관리인 성명 및 연락처)를 모두 게시한 곳은 1기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에 ▲발빠짐 사고 관련 안전기준 강화 ▲차량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 강도 등 안전기준 마련 ▲별도 출입문 및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 안전대책 마련 ▲안전시설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청양소방서, 119

신고요령 적극 홍보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위급상황 발생 시 군민들이 신고요령을 알지 못해 긴급출동이 늦어지는 것에 대비해 119신고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우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119로 신고해 사고 위치에 대한 정확한 주소를 알려야 하며, 주소 모를 경우 주변에 있는 큰 건물, 간판 상호명이나 전화번호, 전신주 번호 및 엘리베이터 번호를 알려주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용이하다.

또, 도로 위에 세워진 전신주의 고유번호를 이용한 신고방법으로 숫자와 영어 알파벳으로 구성된 8자리는 위도와 경도, 세부위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신고 시 위치 파악에 용이하다. 청양=정성범기자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자동차용 워셔액·부동액·습기제거제 등 위해우려제품 신규 지정

가습기살균제처럼 호흡기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 워셔액 등 5개 제품이 위해우려 제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세정제의 경우 염화디테실디메틸아민류(DDAC, 옥틸

이스티아졸린(OIT) 등 26종의 살생물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방향제는 23종, 탈취제는 22종의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의 살생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해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이외에 개정안은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높은 부동액·자동차용 워셔액·습기제거제·양초·틈새충진제 등 5종을 위해우려 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 중 화장실 타이틀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쓰이는 틈새충진제는 최근 사용범위가 늘

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신규 지정됐다.

위해성이 있는 폼데하이드 등 12종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되면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함량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틈새충진제를 생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내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을 검증받아야 하며 같은 해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김정환기자

당진소방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기구 무료 대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의 작동기능점검 편의 위해

당진소방서(서장 방상천)가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의 작동기능점검 편의를 위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기구’를 연중 무상 대여하고 있다.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

리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체는 관련 점검기구를 이용해 매년 1회 이상 점검 후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진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

고 자율안전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청구’를 운영 하고 있다.

대여장비는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 전기절연저항계, 전류 전압 측정계 등 총 6종이며, 장비 대여를 희망하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당진소방서 화재 대책과로 문의하면 대여와 함께 사용법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소방안전 표어·포스터 공모전

서산소방서, 자율적안전공감 형성 위한 공모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는 자율적 안전공감 형성을 위한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사진)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 공모전은 11월에 있는 ‘제70회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되며, 오는 9월 22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주제는 화재 예방의 필요성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응모는 e-mail(ssangmoli@koareak)로 출품작과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상은 총 45작품에 대해 최고상금 200만원 총 상금 1,510만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응모된 작품은 2차례의 심사를 거쳐 10월 12일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별도로 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689-0262)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김정환기자

‘주택용 소방시설’ 랩핑 홍보 눈길

예산소방서, 예산터미널 대합실 주출입구 랩핑 스티커 부착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랩핑을 이용한 홍보를 눈길을 끌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랩핑 홍보는 유동인구가 많은 예산터미널 대합실 주출입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랩핑 스티커를 부착해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했다. 랩핑 홍보로 군민들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을 자주 접하게 돼 아직 설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어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임재청 예방교육팀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공감으로 안전의식이 널리 확산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예산=양성업기자

<화제의 학과> 대덕대학교 총포광학과

“국내 유일의 총포학과 인재양성 주력”



대덕대학교 총포광학과는 육군본부와 학군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2학년 때 장학금을 받는 군장학생, 민간부사관 등의 총포장비, 자주포장비, 광학감시장비, 로켓 포병 등의 병과로 진출하고 있으며, 매년 상당수의 학생들이 3사관학교로 진출하여, 대덕대학교가 전국 제1의 3사관학교 진출의 요람이 되고 있다. 또한 충남대학교 기계공학과, 공주대학교 기계자동차 공학부와 무시험 연계교육 협약을 체결하여 총포광학과 졸업 후 일정 수험능력을 갖추면 유리한 조건으로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에 편입할 수 있다.

대덕대학교 총포광학과 교육과정은 크게 총포광학 실무, 군관련 직무기초, 그리고 총포광학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공학기초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포광학 실무 분야에서는 총기학, 화포학, 자주포 정비, 사격기재, 사격통제장비 등의 군 정비 실무를 학습하며, 군의 시설을 활용하여 실습을 병행한다. 군관련 직무기초 분야에서는 북한학, 무기체계학, 인성과 군대윤리, 안전공학 등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학기초 교과목은 기계설계, 금속재료, 광학, 레이저공학, 용접공학, 비파괴검사 등의 교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학의 기초를 쌓음과 동시에 산업기사 취득에 대비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대덕대학교 총포광학과는 육군본부와 학군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2학년 때 장학금을 받는 군장학생, 민간부사관 등의 총포장비, 자주포장비, 광학감시장비, 로켓 포병 등의 병과로 진출하고 있으며, 매년 상당수의 학생들이 3사관학교로 진출하여, 대덕대학교가 전국 제1의 3사관학교 진출의 요람이 되고 있다. 또한 충남대학교 기계공학과, 공주대학교 기계자동차 공학부와 무시험 연계교육 협약을 체결하여 총포광학과 졸업 후 일정 수험능력을 갖추면 유리한 조건으로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에 편입할 수 있다. 대덕대학교 총포광학과 교육과정은 크게 총포광학 실무, 군관련 직무기초, 그리고 총포광학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공학기초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포광학 실무 분야에서는 총기학, 화포학, 자주포 정비, 사격기재, 사격통제장비 등의 군 정비 실무를 학습하며, 군의 시설을 활용하여 실습을 병행한다. 군관련 직무기초 분야에서는 북한학, 무기체계학, 인성과 군대윤리, 안전공학 등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학기초 교과목은 기계설계, 금속재료, 광학, 레이저공학, 용접공학, 비파괴검사 등의 교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학의 기초를 쌓음과 동시에 산업기사 취득에 대비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직장인 10명 중 6명 “여행·출장시 선물 부담”

<커리어> 직장인 504명 대상 ‘국내외 여행 또는 출장 선물’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은 여행이나 출장을 다녀올 때 동료 선물 구입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직장인 504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 또는 출장 선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9.5%가 ‘국내외 여행 또는 출장 시 상사 및 팀원들의 선물 구입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실제로 여행이나 출장을 다녀올 때 팀원들의 선물을 챙기고 있다’를 묻자 응답자의 38.1%가 ‘그렇다’고 답했으

며 ‘때에 따라 그렇다’라는 의견도 33.3%로 나타났다. ‘챙기고 있지 않다’(21.4%), ‘아부하는 것 같아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 편이다’(7.1%) 순이었다. ‘선물을 챙기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여행이나 출장 이외에도 ‘설날과 추석 명절에도 선물을 챙긴다’(52.6%)라고 답했다. 이어 ‘각종 데이 이벤트’(15.1%), ‘상사 및 팀원 생일’(12.5%), ‘연말연시’(5.2%), ‘상사 및 팀원의 집안 경조사’(3.7%) 순이었고 ‘없다’라는 의견도

10.9%였다. ‘선물은 어느 선까지 챙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팀장을 비롯한 팀원 모두에게’라는 의견이 3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 챙겨도 된다’(25.2%), ‘친한 사람에게만’(18.3%), ‘팀원에게만’(8.9%), ‘팀장에 게만’(6.4%), ‘선배 동료에게만’(1.8%) 순이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생각하기에 동료 선물로 가장 적당한 가격대는 얼마일까?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1만원 미만

(52.2%)’이라고 답했고 33.3%는 ‘1~3만원’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7~10만원’(6.6%), ‘4~6만원’(4.2%), ‘20만원 이상’(2.4%), ‘10만원대’(1.4%) 순이었다. 한편 ‘본인이 다른 팀원에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묻자 ‘종류에 상관없이 받지 않아도 된다’(31%)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담배’(25.4%), ‘초콜릿/쿠키 등의 선물 세트’(18.7%), ‘열쇠고리인형/엽서 등 관광 기념품’(17.3%), ‘술’(4.8%), ‘건장식품’(3%) 순으로 나타났다. 이정복기자



청양교육지원청, 을지연습 학교 재배치·안보교육 실시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충철)은 22일 관내 유·초·중·고 교장 및 행정실장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충무수태에 따른 시설동원학교의 전시 학교 재배치에 대한 사항과 공직자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 재배치 및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재능기부자 연수

충남 남부평생학습관, 재능기부자들의 역량강화 위해 실시

충청남도교육청 남부평생학습관(관장 김용진)은 재능기부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8월 22일(화), 23일(수) 이틀간 2017년 하반기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재능기부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은 남부권역 소재 논산, 부여, 서천, 청양, 금산 지역 다문화가정, 특수학급, 지역 아동센터에 재능기부자가 방문하여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연수는 2차시로 구성되어 1차시는 이윤숙 강사(현 한국어린이문학교육

학회 이사)의 「다문화아동과 가정의 감성 UP」이란 주제로 다문화아동의 인식에 맞춘 그림책 읽기로 운영되었으며, 2차시는 김종인 교수(현 나사렛대학교 교수)의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재능기부자들은 오는 9월부터 12월 까지 주 1회, 총 12회에 걸쳐, 다문화가정이나 기관에 찾아가 책을 읽어주며, 소통과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어휘력과 대인관계,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태선기자



‘지역아동센터 아동 초청 경제교육’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새순지역아동센터 아동 19명 초청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본부장 김한수)는 22일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새순지역아동센터 아동 19명을 초청, 금융경제교육 및 견학 행사를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에서 ‘한국은행이 하는 일과 비박직간 소비생활’, ‘용돈관리 방법 및 중요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은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후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을 견학했다. 송병배기자

2016 회계연도 결산기준 교육재정 공시

대전교육청, 세입 결산액 1조 8,461억원, 세출 결산액 1조 7,262억원 공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장 설동호)은 주민 관심사항에 대한 특수공시 사업으로 에듀윌링센터 운영, 학교운동장제 조성사업,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화장실 개선사업, 냉난방개선사업을 선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교육재정은 공통공시로 세입·세출운용상황 등 73개 항목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특수재정운용상황 및 주민 관심사항에 대한 특수공시로 나누어 공시된다. 지방교육재정공시는 교육청의 재정운용상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알려 재정상황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정환기자

한편, 대전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1조 8,461억원으로 전년대비 691억원 증가했고, 세출 결산액은 1조 7,262억원으로 전년대비 674억원 증가했다. 또한, 순세제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지방자치단체 세입 재원의 증가 등으로 478억원 흑자로 전환되어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으며, 세출 불용액도 예산현액대비 전년도 3.85%에서 2.24%로 감소되어 적기에 교육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교육재정에 대한 기타 자세한 공시자료는 시교육청 홈페이지(www.djgo.kr/정보마당/열린예산)방재정현황/지방교육청공시에서 볼 수 있다. 김정환기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세종시교육청, 기정예산보다 207억 원 증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기정예산보다 207억 원이 증액된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재원은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교부금 174억과 특별교부금, 국기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 33억으로 기정예산 8,041억 원 보다 207억 원이 증액(2.6%)된 총 8,248억 원을 편성했다. 세출예산안에는 ▲교수·학습 활동지

원 34억 원 ▲학교시설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개선 26억 6천만 원 ▲학생 건강 관련 사업 2억 3천만 원 ▲학교·교육기관 시설확충 134억 원 등 총 207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추경 취지를 고려하여 학생 건강·안전, 교육시설 개선·확충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업 중심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9월 1일(금)부터 열리는 제4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이정복기자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공주교육지원청, 9월 8일까지 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공주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 및 변경한다. 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원서접수에 필요한 신분증(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 1부,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응시수수료를 지참하여야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기간에서 제외된다.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은 졸업예정자의 경우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 또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현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졸업증명서 원본 1통 및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증시험 합격자 등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접수 및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부 및 주민등록초본 1부를 준비해야 한다.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행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고교나 응시를 희망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접수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최근 1개월 이내(2017.7.24 이후) 발급된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행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로 제한되며, 이 경우에도 응시자의 직계가족에 한한다. 이때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대리 접수 서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감의 결정으로 허용할 수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2017 을지연습 안보강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 대상으로 실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은 21일 제1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권선진 안보협력관을 초청하여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2017 을지연습 안보강연을 실시했다. 권선진 강사는 이날 “스마트 시대, 스마트 안보”의 주제로 북한의 안보 현황, 동북아 안보 환경, 한미 동맹관계, 통일을 위한 노력 등 우리나라가 갖는 분단

의 특수관계에 관점에서 다각도로 설명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안보강연 이외에도 을지연습 기간 중 안보사진 및 전후물자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또한 을지연습 포스터 및 동영상 홍보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논산=김태선기자

하반기 신규 TaLK 장학생 사전 연수 운영

충남도교육청,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포함 하반기 봉사활동

영어권 국가에서 선발된 제19기 신규 TaLK(토크,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원어민 장학생 10명이 9월부터 충남 도내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 강사로 봉사활동에 나선다. 이에 따라 기존 도내에서 활동하던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을 포함해 총 30명이 하반기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TaLK(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사업은 2008년부터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 사업으로 시작해 농촌지역 학생들의 방과후 영어교육 기회 제공 및 도·농간 영어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는 한편, 원어민영어봉사장학생들을 글로벌 시대 민간 한국 홍보사절로 양성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앞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2일부터 24일

까지 2박 3일간 아산캠코인재개발원에서 TaLK 원어민 장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전문성 신장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배치된 제19기 신규 TaLK 원어민장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자료 제작 ▲스토리텔링 ▲수업안 작성 및 시연 ▲읽기·쓰기 지도법 ▲케이팝(K-pop)과 한류 ▲영어캠프 지도 ▲교실수업 활동 ▲나의 토크 라이프(TaLK Life) 설계하기 등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TaLK 장학생들의 친충남(親忠南)ç친한국(親韓國) 정신을 함양하고, 학교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전문성 신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2017 안보/안전체험 프로그램’ 행사

금산교육지원청, 관내 6학년 학생 60여명과 함께 금산군청 연계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은 22일 관내 6학년 학생 60여명과 함께 금산군청과 연계한 ‘안보/안전체험 프로그램’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번 견학행사는 을지연습을 맞이하여 전시상황을 경험해보고 국가안보를 되새기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견학에 참여한 60여명의 학생들은 금산군청의 군장비 및 화생방장비

관람, 방독면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을지연습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희천 교육장은 “이런 안보체험 기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이 고취되는 계기가 되고, 을지연습 기간이 아니라 평시에도 주기적인 안보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전정민기자



서천교육지원청, 을지연습 기간 중 다채로운 전시회 및 체험활동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주)은 을지연습 기간동안(8.21~8.24.) 교육지원청 청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학교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7 을지연습과 함께하는 안보 사진 전시회 및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 특 정 •

플리텍대학참사 북카페 개관식



김석환 홍성군 수= 23일 오전 11시 한국 플리텍대학 홍성캠퍼스에서 열리는 플리텍대학 참사 북카페 개관식에 참석.

을지훈련 민방공대피훈련 총괄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23일 오후 2시 '2017 을지훈련 민방공 대피훈련'을 총괄.

충남발전협의회장 취임식



윤석우 충남도의회의장= 23일 오후 2시 충남개발공사 10층에서 충남발전협의회장 취임식에 참석.

도 해외환자유치 사업 나서

충남도가 도내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나섰다. 도는 최근 단국대병원과 함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갖고 소정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이주여성 6명에게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수료생들은 도내 거주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몽골 출신의 이주여성 가운데 한국어 가능통한 인력들이다. 이들은 지난달 1일부터 8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단국대학교 I-다산LINC+사업단이 개설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에 참여해 암 질환 치료·관리, 건강검진·치과진료 교육 등을 수료했다.

특히 이들은 도내 특성화 자원인 온천과 연계된 수증재활체조 교육은 물론, 마케팅, 고객 응대 매너 및 스타일링 등의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이 겸비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거듭났다. 앞으로 이들은 모국에서 건너온 환자와 가족에 대한 통역과 의료상담, 진료지원, 원무, 관광 안내는 물론, 의료관광 전반에 대한 계획 설계 및 시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해외환자 의료관광 사업의 첨병으로 활동하게 된다.

도는 이번 과정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심화과정을 개설하는 등 대응전략을 마련해 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 해외 의료관광객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충남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의료관광 관련분야 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단국대병원과 함께 2015년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에 선정돼 도내 의료관광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김정환기자

상반기 교육경비 1501억 확보 순항

충남도교육청, 자치단체 1315억·민간재원 186억 원으로 목표액 1718억 대비 87% 달성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상반기 자치단체와 민간으로부터 교육경비 1501억 원을 확보해 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연초 설정 연간 목표액 1718억 원의 87%를 확보한 것으로, 자치단체로부터 1315억 원(목표대비 93%), 민간으로부터는 186억 원(목표대비 61%)을 확보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자치단체는 103억 원(9%), 민간재원은 88억 원(90%)이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자치단체 관계부서 방문 협의, 지역별 민간단체·기업 방문 협의, 1교 1사 결연 활동 등 업무담당자들의 노력과 지자체 및 민간의 적극적인 교육부문 투자여지가 결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치단체의 경우 지원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 지역은 천안시로 357억 원을 지원했고, 이어 아산시가 186억 원, 당진시와 서산시 각각 131억 원을 지원했다. 자치단체가 지원한 사업은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이 66%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교육시설 개선비, 외국어 교육 지원비, 방과후 돌봄비 등으로 지원됐다.

민간재원 경우 교실증축 기부채납 등으로 아산지역이 43억 원, 당진지역이 35억 원, 보령지역이 29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지원 사업은 교육시설 개선비가 54%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장학금, 교육복지비, 체육활동비 등으로 지원됐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의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운용성과 평가에서 교육경비 지지체 확보액이 전국 최고치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올해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5일 도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는 14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확보 우수사례 발표와 하반기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회가 개최된다.

도교육청 최정국 재무과장은 "하반기에는 분청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교육협력책임관이 연고 지역 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등을 방문해 교육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교육경비지원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등 교육경비 확보에 활동비 순으로 지원됐다."

이정복기자



덕산면 상가저수지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예산군, 9월 1일부터... 수질 오염 방지·환경 보호

예산군은 덕산면 상가리 도립공원 내 상가저수지의 자연환경 보전시설 보호 및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낚시금지 구역 지정은 농업용수 수질 보전 대책으로 낚시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상가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호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덕산면 상가리 50-16번지 일

대에외에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상가저수지의 낚시금지 구역 지정으로 낚시꾼의 불법행위로 인한 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상가저수지가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며, 낚시금지 구역 지정된 외래종 퇴치사업에 비례해 어종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홍성군 농기센터 해외진출 기술 보급

제품수출서 재배기술까지 'one-stop' 보급으로 큰 호응 얻어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는 광천읍 소재 상토(인공 배양토) 전문 생산업체인 ㈜참그로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 농가를 대상으로 금마면 화양리 딸기 재배 농가에서 딸기재배 기술을 보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단순히 기업이 상토만을 수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센터

가 작물재배 기술을 같이 보급함으로써 상토의 사용방법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여 기업의 중국 수출시장을 넓혀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함으로 관과 기업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중국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참그로는 2005년에 설립된 홍성

향토 기업으로 광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생산품목으로 원예용상토, 수도용상토, 축산용 톱밥이 있다.

또한 업계 최초로 유기농상토(원예용/수도용)를 개발하여 특허 출원을 한 바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지난해에 중국 신양시 상천체 비금속광산관리구와 국제우호 협력 MOU 체결한 바 있으며,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농업관련 기업의 매출 증대 및 해외진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보급 교육에 참석한 중국 농민은 "홍성은 농업기술센터라는 기관을 두고 딸기의 원종을 보급 받는데 반해 중국은 아직 그런 기반이 없어 안타깝다.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 홍성군의 자문을 받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홍성=김정환기자

세종선거관리위원회 청사 8월 말 착공

"친환경 녹색도시 성장 기반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정청)은 세종시 보람동(3-2생활권)에 건립하는 세종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이하 선관위 청사) 건립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청사는 연면적 2426㎡,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건축물로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 예비인증 획득한 바 있다.

행정청은 이번 시공사(건주종합건설)와 건설사업관리업체(대흥종합엔지니어링)를 선정하였으며, 8월말 착공 및 2018년 11월 준공 후 운영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행정청은 선관위 청사를 성공적으로 건립하기 위해 착공 전에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업

체와 함께 차양일체형 외피 등 최신 패시브기술과 선관위 청사에 반영된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해 검토하고, 건설공사 과정에도 설계자가 적극 참여하여 당초 설계기준(컨센)이 유지되도록 하는 설계·시공 일체형 공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사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승기 행정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선관위 청사는 에너지자급률이 53%에 달하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이라며 "선관위 청사를 성공적으로 건립하여 5생 활권에 추진하는 제로에너지타운과 더불어 행복도시가 친환경 녹색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2017 을지연습' 전시현안과제 토의 개최

핵폭발 상황 가정 종합 대책 모색

충남도는 22일 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도 실·국·원·본부장, 32사단과 도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을지연습' 전시현안과제 토의를 개최했다.

계룡대 정문 상공 250m에서의 핵폭발로 인근 지역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가정,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토의는 실·국 및 유관기관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보고는 경보 발령과 대피 유도 및 통제, 긴급통신망 구축, 비상 의료 대책, 환자 후송, 체육 대책, 해양 선박 출입통제, 수산물 유통 통제 대책, 소개 주민

식수·급식·생필품·의료 지원 대책, 교통 및 치안 대책 등이 각 실·국 및 유관기관별로 열렸다.

이어 토론에서는 핵 공격 전·중·후 핵심 조치 방안, 방사능 위험 지역 내 주민 대피 방안, 방사능 오염 환자 후송 및 진료 대책 등을 중점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북한의 핵 도발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건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 대처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며 "실전과 같은 연습 체계를 유지해 을지연습이 현장감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성인문해교육 수강생 모집

세종시평생교육진흥원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준)은 9월 1일까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종중종합사회복지센터 복지관이 세종시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것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게 된다.

수강은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 내용은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국어 과목으로, 9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운영한다.

이준 원장은 "소통과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자를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종중종합사회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044-850-3035)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세종=김정환기자

예산군 "부담 없는 산후조리 받으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경제적 부담 감소



예산군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가 집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위생관리 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지원으로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직장 기준 11만 177원이 넘어도 자체 군비로 지원받아 동일한 산후조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군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을 원하는 부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이번 지원은 출산 후 60일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놓을 경우 산후조리원을 다녀온 후에도 각 가정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산=양성업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가 집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위생관리 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지원으로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직장 기준 11만 177원이 넘어도 자체 군비로 지원받아 동일한 산후조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군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을 원하는 부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예산=양성업기자

동정

을지연습 실제훈련



김홍장 당진시장 = 23일 오후 2시 30분 GS-EPS 화력발전소에서 열리는 2017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참관

을지연습 실제훈련



한상기 태안군수 = 23일 오후 3시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리는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참관

을지연습 실제훈련



이석화 청양군수 = 23일 오후 2시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칠갑산 지천천협력추진결과 보고회를 주재한 후, 오후 4시 청양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참석

한상기 태안군수 발품행정 “구슬 땀”

지난 21일 안면읍 부잔교 설치 사업장 등 주요 사업현장 점검

한상기 태안군수가 지난 21일 안면읍 부잔교 설치 사업 현장 등 주요 사업장 및 민생현장을 둘러보며 민선6기 시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태안군에 따르면, 한 군수는 21일 ▲무더위 쉼터(안면읍 승언리) ▲‘쌀 썩은 여’ 선착장 공사 현장(안면읍 신아리) ▲장동 어촌계(고남면 장곡리) ▲어장 진입로 사업장(고남면 누동리) ▲부잔교 설치 사업장(안면읍 중장리) ▲춘산동 저수지 준설 사업장(안면읍 중장리) ▲도로역 조성 예정지(남면 당암리)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살폈다.

민선6기 현정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상기 군수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과 5월 1·2차 점검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한 군수는 그동안 동해지구 저수지 개발 사업 현장과 식산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현장, 군도11호 도로



한·포장 공사 현장 등 총 12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주요 시책 사업의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주변 주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날 현장 찾은 한 군수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발전적 군정방향을 정립하고

미래 성장 동력 사업 및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성과 기사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민선6기 들어 중점 추진 중인 ‘30대 미래전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발전전략 및 맞춤형 전략을 설정하는 등 군정목표인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 시대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사업장과 남면 202호 확·포장 공사 현장 등 20개소를 추가 방문키로 하는 등 민선6기 사업 추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겠다는 방침이다.

한상기 군수는 “앞으로도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행복한 태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우리/동/네

에너지의 날 홍보 캠페인 전개

당진시, 에너지 절약선택이 아닌 필수

당진시가 22일 제14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당진시내 구터미널 일원에서 에너지 절약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캠페인에는 시 공무원과 당진 환경운동연합, 지역 주민 등이 참여했으며, 에너지 절약 실천 서명운동과 지구온난화 시뮬레이션 사진전시회 등을 진행하고,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홍보물품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17만 시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안 쓰는 콘센트는 뽑아 두는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에 시민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에너지의 날은 지난 2003년 8월 22일 전력소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날로, 에너지 시민연대가 에너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날을 에너지의 날로 정하고 2004년부터 처음 시작된 이후 에너지 절약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전국적인 행사로 거듭났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

각종 훈련으로 초기대응 익혀 안전도시 청양 구현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2017을지연습 훈련에 본격 돌입했다. 군은 지난 21일 오전 6시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오전 8시 30분 이석화 군수를 비롯한 실·과·직속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최초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전반적인 훈련 진행과정과 실과별로 을지2종사태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등을 보고하고, 안보영상물을 시청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석화 군수는 “이번 훈련이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도시 청양을 구현할 수 있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오는 23일에는 청양문예회관에서 전시 급식 및 생필품 배부 절차 실제훈련을 시행할 계획으로,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훈련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실제훈련 뿐만 아니라 을지연습 기간에 행해질 초기대응 조치훈련, 행정기관 소산 이동훈련, 도상연습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 행복키움, 훈훈한 사랑 나눔

온양5동·온양동·온양4동

지난 19일, 평생학습관 지하전실실에서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공동단장 심홍섭, 강연식)은 온양5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행복키움 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온양5동 행복키움 청소년봉사단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016년부터 이어온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관내 저소득가정 아동 중 순위 형제 자매가 없거나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과 온양5동 행복키움 청소년봉사단 단장 정수현씨의 멘토링제를 운영해 자애와 경험 공유, 믿음과 신뢰 형성, 정서적인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1:1 결연된 멘티·멘토 30명의 간담회(테레이션 포함) 및 선물 증정, 점심식사, 뮤지컬(폐)의 꿈을 관망하며 서로 공감하고 교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산시 평생학습관관장 김오직은 행사의 취지에 동참하고자 장소 제공과 뮤지컬 공연 객석 나눔을 협조를 해 주었고,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에서는 결연된 멘티·멘토의 차량 지원 및 식사제공 그리고 행사물품 등을 지원했다.

온양1동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원광옥)은 8월 21일 복지허브추진을 위한 정기회의 및 사랑의 물품나눔 활동을 가졌다. 매일 정기회의와 함께 추진하는 사랑의 물품 나눔 활동은 단원과 1:1결연을 맺은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아산시 기초푸드뱅크의 기부물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안부살피기 등 모니터링까지 실시하고 있다.

온양4동 행복키움추진단(단장 박길남)은 지난 21일, 월례회의를 갖고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복지허브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양4동 행복키움 8월 월례회의를 마친 후 손수 준비한 사랑의 밑반찬과 아산시 기초푸드뱅크 연계로 지원받은 식료품(즉석식품, 음료수, 간식류) 등을 관내 소외계층 31가구에 가정방문해 전달했다.

아산=리량주기자

(042)538-3030

농기계 순회수리 농업인들 ‘호응’

당진시, 가까운 곳에서 쉽게 수리... 농업인 만족도 높아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2년 만에 재개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그동안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2년 동안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중지했지만 올해 기술인력을 충원하고 5톤 순회수리차량도 재정비해 지난 6월 말 순성면 양유리를 시작으로 11월 초까지 60여 마을 순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2년 만에 재개한 사업임에도 이달 22일 현재까지 27곳의 마을을 방문해 경운기와 관리기, 예초기, 분무기 등 499대의 소형 농기계를 수리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성공적으

로 운영 중이다. 특히 1만 원 미만의 부품의 경우 3만 원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외의 부품 비용도 심비만 부담케 하는 등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이동식 수리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이 직접 수리와 정비를 해 볼 수 있도록 실습 시간도 마련하는 등 실제적 기술지도에 주력한 점도 이동수리교육의 또 다른 인기 요인이다.

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이 직접 점검과 수리할 수 있도록 정비능력 배양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해 인기가 많다”며 “앞으로 농업기



계의 관리요령과 안전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보건소 영유아대상 한의약 시범사업 선정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6주 걸쳐 체험 등 건강관리 교육 제공

아산시보건소(소장 김기봉)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영유아대상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원 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 보건소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6주에 걸쳐 아이들에게 어린이 도인체조, 건강간식 제공, 한약재 체험 등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한의약적 건강관리법 교육과 아동 건강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시범사업 프로그램 외에도

영양관리 및 구강건강 교육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영유아 대상 체험 프로그램과 보호자의 영유아의 건강관리법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생활태도 함양 및 질환 예방에 힘쓰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목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8월 자원봉사의 날 추진

청양군 목면 자원봉사 거점센터(센터장 배상옥)는 지난 21일 관내 대평1기 가야리경로당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자원봉사회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에게 흰 머리 염색을 해드리고, 수세미를 만드는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배상옥 센터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태안군 가을 꽃게잡이 닷 울려·지역 경제 ‘훈풍’

30척 4톤집아. 위반장서 1kg당 1만원~1만2천 원 선 거래

태안군의 상징이자 태안반도의 대표 수산물인 꽃게가 지난 21일 금어기 해제 이후 본격적으로 수확돼 전국의 미식가들을 유혹하고 있다.

태안군의 대표 꽃게 산지인 근흥면 채석포항에서는 금어기 해제일인 21일 0시를 기해 하루 총 30척의 배가 바다로 나가 약 4톤의 꽃게를 실고 위반장으로 돌아오며 본격적인 꽃게잡이의 시작을 알렸다.

수확량은 지난해 가을 첫 수확량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이는 출항

특징이 있다. 태안에서는 간장게장과 계곡지 등 지역색이 풍부한 꽃게 음식을 저렴하고 신선하게 즐길 수 있어 어민뿐 아니라 향·포구 주변 횡집과 펜션 등 공중·위생업소 운영 주민들도 관광객 맞이에 분주한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태안의 꽃게는 깨끗하고 청정한 바다를 의미하는 태안군의 마스코트로서 태안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올 가을에도 꽃게 대풍이 들어 어민과 관광객들이 모두 행복해지고 지역경제에도 훈풍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징이 있다. 태안에서는 간장게장과 계곡지 등 지역색이 풍부한 꽃게 음식을 저렴하고 신선하게 즐길 수 있어 어민뿐 아니라 향·포구 주변 횡집과 펜션 등 공중·위생업소 운영 주민들도 관광객 맞이에 분주한 분위기다.



태안=김정환기자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함

아산행복드림 지역사회나눔 문화 확산 기여

올해 96세인 유○○ 할머니는 남편과 자녀들 모두 사망하고 임대주택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집 앞으로 마실이라도 나가고 싶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소리로 집 들리지 않아 이웃과 대화도 힘들다. 외부활동이 어려운 할머니는 외로움과 고독함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웃주민을 통해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을 알게 됐고, 손자·손녀를 만나게 됐다.

할머니의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복지관에서는 아산행복드림 후원업체를 통한 밑반찬지원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시작했다. 매일 2회 손자·손녀 나이의 자원봉사 청소년들이 가정방문해 아산행복드림사업 후원업체인 흥가네 식당에서 준비해준 정성 가득한 밑반찬을 전하고 할머니의 안부를 묻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밑반찬을 후원해주는 흥가네 식당(유하동)은 2012년 10월부터 아산행복드림사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밥을 잘 드시지 못하는 할머니를 위해 누룽지를 따로 준비하는 등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다.

할머니는 “밥 먹기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누룽지를 줘서 편하게 식사 잘하고 있어. 너무 고마워~”라고 항상 감사인사를 한다. 아산행복드림사업은 지역 내의 상점, 학원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기부(물품, 서비스)에 참여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도움을 받은 이웃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나눔의 릴레이로 행복한다. 아산을 만들어 가는 민·관·산 협력 사업이다.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기부업체 37개소, 서비스 이용자 2,626명, 서비스 연계 6만1342건(환산액 4억635만5910원)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천안북부 BIT일반산업단지 조성 '탄력'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북부지역 산업단지조성 기틀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굿뜨래 10미 확대 농가 기대감 UP

애호박, 취나물 농가 농가소득 기대감 커져

부여군 고품질 농산물 대표브랜드 굿뜨래가 10미로 확대되면서 애호박, 취나물 농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05년 굿뜨래 8미를 선정된 이후 12년 만에 두 품목이 늘어난 굿뜨래 10미는 전국 생산량을 비롯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밤, 표고, 양송이, 방울토마토, 멜론, 오이, 딸기, 수박, 애호박, 취나물 등을 선정,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애호박과 취나물 중 총량도 생산량 1위, 전국 생산량 20%를 차지하는 백마강 취나물은 독특한 향취와 미각을 자랑하는 부여군 남면의 대표적인 품목이다.

2월에 정식한 후 6월에 가장 많이 생산하며, 시설하우스 재배로 12월 중순까지 신선한 취나물을 공급하고 있다. 남면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취나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은 이번 굿뜨래 10미 추가를 크게 반기며 향후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14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남면의 취나물연구회는 '백마강 취나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재배기술교육, 선진지 견학, 공동출하 등을 추진하며 좋은 품질의 취나물 생산과 체계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성취정 취나물연구회 총무는 "앞으로도 굿뜨래 브랜드 명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부여읍과 규암을 중심으로 2016년 기준 4,385톤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애호박 농가들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여읍 애호박 공선회 강인구 총무는 "최근 애호박이 소득 작물로 각광받기 시작했었는데 이번 굿뜨래 10미 선정으로 소득에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한다"며 "애호박은 연작피해가 적어 여름철 수박 농사를 지었던 농가들이 가을 애호박 농사에 많이 뛰어들다"고 말했다.

애호박은 9월초 정식한 후 45일이 지나면 수확이 가능하고 보통 12월까지 수확할 수 있다. 부여에서 생산하는 애호박은 품질이 우수해 이전부터 인공분이 나기 시작했으며, 품질을 보증하는 굿뜨래로 인증받으면서 철저한 품질관리와 선별, 검사 등을 통해 보다 고품질의 애호박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시 성환읍 일원에 조성되는 천안북부 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로 최근 조성된 산업단지 분양 완료에 따른 산업단지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시설용지의 계획적 공급과 우수기업 유치로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천안시와 코오롱건설 등이 참여해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되는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미래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치업체들은 생명공학, 동물자원, 유전자 등 BI와 전자, 영상 등의 IT 업종 등으로 미래 성장사업의 핵심이 되는 기업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은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되며

유치업체들은 생명공학, 동물자원, 유전자 등 BI와 전자, 영상 등의 IT 업종 등으로 미래 성장사업의 핵심이 되는 기업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은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되며

로 분석됐다.

올해 산업단지 계획 용역을 발주해 내년에 법인을 설립하고 2019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통해 상반기 보상과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석교 기업지원과장은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천안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마침내 청신호가 켜졌다"며 "단지가 조성되면 기업유치, 신규 일자리 생성, 미래 먹거리 선점 등 신성장 동력창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 확보를 위해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함께 LG 생활건강류처 일반산업단지,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5산업단지 확장, 성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안=군본성기자

통정 준공식



구본영 천안시장= 23일 오전 7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충남경제포럼에 참석하고 오후 4시 입장면 유리 입장포도산지 유통센터에서 열리는 입장포도산지 유통센터 준공식에 참석.

한우개량교육



황명선 논산시장= 23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되는 2017 한우개량교육에 참석

시민어울림한미당



최홍목 계룡시장= 23일, 오후 7시 30분 업무사거리에서 열리는 제7차 시민어울림한미당 행사 참석.

일일상황 보고회



노박래 서천군수= 23일 오전 8시 30분 회의실에서 열리는 읍지연습 일일상황 보고회에 참석

현장지도



이용우 부여군수= 23일 오후 2시 30분 부여 충화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리는 읍지연습 현장지도에 참석

천안시맑은물사업소 에너지 절약요청

천안시맑은물사업소는 관리동, 식당동 등 50개와 100주의 수세미를 식재해 녹색커튼을 조성하고 에너지절약에 앞장서고 있다.

녹색커튼은 올해와 같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태양광을 차단해 실내온도를 낮춰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취약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힐링' 역할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사업소는 특히 하수처리장을 방문하는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들에게 시각적인 청량감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녹색커튼 설치를 통한 열섬현상 완화, 먼지차단 등의 효용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진 하수운영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공하수처리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방문교육사업, 한국어교육프로그램, 예비학부모교육,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취업교육프로그램, 학부모 역량강화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가족 검정고시반 운영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공동체의 다문화 인식개선 등 지원사업의 통합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여=이정복기자

한편, 부여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방문교육사업, 한국어교육프로그램, 예비학부모교육,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취업교육프로그램, 학부모 역량강화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가족 검정고시반 운영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공동체의 다문화 인식개선 등 지원사업의 통합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여=이정복기자

두계천 생태공원내 물놀이장 폐장

계룡시, 지난달 22일부터 30일 동안 1만여명 찾아 북적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목) 두계천 생태공원내에 위치한 야외물놀이장이 많은 시민의 아쉬움을 남기며 지난 20일 폐장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개장한 물놀이장에는 하루 평균 400여명, 전체 인원 1만여 명이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등 가족단위 여름휴가 쉼터로 자리매김 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는 물놀이장 개장에 앞서 지하수와 함께 상수도병행 공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체험환경 조성하고 더불어 샤워장과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해 이곳을 찾는 시민에게 불편

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물놀이장을 함께 찾는 학부모 등 가족을 위해 그늘막을 마련하여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주변 산책로를 말끔히 정비하는 등 자연과 함께 도심 속에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는 올해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개선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내년에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물놀이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의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다.



시 관계자는 "야외 물놀이장은 온 가족이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며 추억을 만드는 좋은 공간이 되고 있는 만큼 올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도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계천 물놀이장은 지난 2013년 개장이후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매년 1만여명이 여름 피서를 즐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부여군 결혼이민여성 한국어능력시험 합격률 92% 달성

결혼이민여성 12명 응시결과 11명 합격...수준별 한국어 수업주요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제53회 한국어능력시험(7월 16일)에 부여군 결혼이민여성 12명이 응시한 결과 11명이 합격하여 92%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부여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준별로 4개반을 구성하여 2

시간씩 맞춤형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해 2016년부터 바뀐 한국어능력시험에 맞춰 읽기, 듣기, 쓰기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방법과 모의고사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2번 3시간씩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수업을 지도했다.

부여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방문교육사업, 한국어교육프로그램, 예비학부모교육,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취업교육프로그램, 학부모 역량강화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가족 검정고시반 운영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공동체의 다문화 인식개선 등 지원사업의 통합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여=이정복기자

계룡시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전개

지난 19일,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 고충 상담 실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목)는 지난 19일 업무사거리 원형광장에서 청소년 및 전문상담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고충 상담을 실시했다.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의 일환으

로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지역 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해 구성된 1388청소년지원단과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가 동참하여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했다.

이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은 '학교폭력 예방! 우리가 함께 합니

다.', '폭력 없는 계룡시' 라는 슬로건으로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피켓 홍보와 리플렛 배부 등 학교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알렸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령화 되고, 신체폭력보다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성적모독 등 언어·정서적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캠페인과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학교폭력 없는 계룡 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

논산농업기술센터 신재복 지도사 시설원예기술사 취득

시설원예분야 최고 전문자격증 · 직원 전문화 노력 결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복이 근무하는 신재복 농촌지도사(51)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시설원예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신재복 지도사는 15년 동안 식

량작물, 경영정보, 딸기분야 업무를 두루 거치며 낮에는 영농현장에서, 야간에는 농업대학 강의 및 품목별(배, 친환경농법, 딸기) 연구회 육성에 이바지했다.

시설원예기술사는 시설원예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공, 평가와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종합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농업분야 최고 자격증으로 올해 전국에서 7명이 최종합격했다.

이재복 소장은 "직원들의 업무 능력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기

회를 제공해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문농업기관이 되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농업기술센터는 1인 1자격증이상 취득 목표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직원 36명이 48개의 농업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읍지연습 복합재난대비 실제훈련

서천군, 서천경찰서 등 15개 유관기관 참여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1일 국립생태원에서 서천군을 비롯한 서천경찰서, 서천교육지원청, 서천소방서, 육군 제8361부대 1대대 등 15개 유관기관의 참여하에 읍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실제훈련은 복합재난대비훈련으로 비상시 책임기관의 역할 분담으로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재난수습 능력을 배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해 중점을 뒀다.

복합재난대비훈련은 폭발물테러에 의한 화재와 건물붕괴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사태수습훈련으로 공무원,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민간인 등 200여 명의 인력과 소방차, 구급차, 방역차 등 25대의 장비가 참여했다.

훈련은 5단계로 이루어졌으며 ▲1단계는 재난발생상황 신고·전파,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테러범 체포▲2단계는 자위소방대활동 및 화재진압, 인명구조▲3단계는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운영▲4단계는 긴급구조 유관기관·단체 활동 및 집중방수로 화재 완전진압▲5단계는 상황종료에 따른 복구활동 및 노박래 서천군수의 종합강령으로 진행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현재 안보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에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아래 다중밀집 시설 테러에 대비한 훈련을 통하여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위급상황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통정

시장과의 민원상담의 날 운영



오시덕 공주시장은 23일 오후 2시 30분 종합민원실에서 시장과의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오후 4시 공주정수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참석.

을지연습 일일상황보고



김동일 보령시장은 23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을지연습 일일상황보고,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2022보령해양머드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운영 중간보고회, 오후 3시 보령시청에서 열리는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관.

농촌지도자 비전 실천 교육



이완섭 서산시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농촌지도자 비전 실천 교육에 참석, 오전 10시 30분 인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2017 서산6축마늘 주아수매장을 방문, 오전 11시 20분 부석면 지산리에서 열리는 첫 배 베기 행사에 참석.

사랑의 집고치기 행사



박동철 금산군수는 23일 오전 11시 남일면에서 열리는 사랑의 집고치기 행사에 참석.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관



이연주 공주교육장은 23일 오후 4시 월송동 공주정수장에서 열리는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참관.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042)538-3030

공주시, 매월 셋째주 금요일 '만남! 공주시 신관동' 행사

시민·관광객 문화공연 관람 기회

공주시 신관동(동장 김영신)은 지난 18일 신관동변영로공원 야외 무대에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문화공연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무대 '만남! 공주시 신관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신관동 13개 단체장,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리마켓과 체험부스, 공주시 홍보관, 댄스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이행 행사를 통해 인근 주민들과 상가를 찾는 고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돼 젊은층과 중장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만남의 장이 펼쳐졌다.

특히, 부대행사로 마련한 태국, 필리핀 등의 세계음식문화체험 부스

에는 이국적인 음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관광객들이 몰렸으며, 바다페스티벌과 풍선아트 등 가족단위 체험 행사에도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체험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7월 28일 개막식과 함께 첫 번째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으며, 9월과 10월에도 셋째주 금요일(9월 15일, 10월 20일)에 신관동 후레쉬마트 앞 변영로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윤경태 신관동단체협의회장은 "신관동 주민뿐만 아니라 공주시 시민들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만남의 장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로 좋은 추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대천·무창포 해수욕장 올 여름도 '최고의 피서지'

각각 20·16일 운영 종료... 대천 1359만·무창포 94만 방문

보령시는 지난 6월 17일 개장해 8월 20일까지 65일간 운영한 대천해수욕장의 관광객이 지난해 보다 9% 증가한 1359만 명,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한 무창포해수욕장은 94만45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올 여름도 전국 최고의 피서지로 다시 한 번 입증 받았다고 밝혔다.

패스티벌과 뉴질랜드 축제 노하우 수출, 후원금 증가로 10일간 유료 체험 입장객 5만3072명과 외국인 62만2000명 등 모두 568만8000명이 방문해 지구촌 최고의 여름 축제로 재입증 했고, 국내 최대 규모의 제12회 해양스포츠제전이 충남 지역 서해안에서는 역대 최초로 열리며 휴가철 막바지에도 4일간 26만여 명이 방문, 때 아닌 호황을 누렸다.

시에 따르면 올해 여름 휴가철 해외로 여행을 떠난 관광객이 1일 최대 20여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볼거리 풍부한 기쁨으로 충남 지역의 해수욕장의 물 부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지만 7월 초 집중된 장마로 인한 물 부족 해결과 다양한 행사, 불거리로 국민들의 발길이 다시 대천·무창포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나들목을 이용한 차량은 역대 최대인 88만 6200대, 국도는 115만6501대, 대천역을 이용한 승객은 승차 13만 8165명, 하차 14만1758명으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대천해수욕장은 기간 중 올해 성년을 맞았던 제20회 보령머드축제와 최대 규모의 제12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 열려 어느 해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했다.

공영시설 사용료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영 야영장, 샤워장, 물품보관소 등 시설사용료가 1억2876만원으로 지난해 9596만원 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교통환경과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도 크게 기여했다. 내륙지역과 대천IC에서 대천해수욕장으로 접근하는 대해서는 지난

해 연말 6차로(폭 35m, 길이 5.86km) 확포장 공사를 완료해 성수기 차량 정체 해소에 기여했고, 3만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펜션·모텔·연수원·민박·호텔 등 300여개의 숙박시설도 관광객 이용 편의에 크게 기여했다.

또 개장기간 주요 광장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펼쳐졌고, 스카이버이 크왕복(2.3km)와 질트랙(613m),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워터파크와 놀이시설(퀵랜드), 트랙아트 뮤지엄(박물관은 살아있다)과 머드축제의 역사를 보여주는 머드박물관도 많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김동일 시장은 "해수욕장 운영 기간 중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해양경찰, 자원봉사자 등 유관기관 및 단체 수천여 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한 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무엇보다 값진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로 사계절 전천후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 휴양도시로 우뚝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대성기자

우리/동네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서산지역 영상문화발전 촉진 총 31억 투입... 내년 2월 준공

서산지역에 영상문화발전을 촉진시킬 영상미디어센터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의 첫 삽을 떴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신 미디어 문화시설의 조성으로 서산 지역의 영상문화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서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확보된 국비 12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31억이 투입



된다. 서산문화원을 리모델링해 건립되는 서산영상미디어센터에는 라디오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방송실 등의 시설이 위치한다.

또 공연과 영상물 상영은 물론, 각종 행사와 강의 공간으로 활용될 공연장을 221개의 객석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의 영상제작 참여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아리방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산영상미디어센터가 건립되면 영상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서산시가 충남권 영상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서산영상미디어센터가 건립되면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과 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영상산업과 미디어 문화의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사가 기한 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공주시, 평생교육 강사역량강화 워크숍

기본소양 함양·역량 높이고자

공주시시장 오시덕은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지난 19일 고마에서 공주시 및 도내 평생교육강사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생교육 강사의 기본소양 함양과 강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충남 평생교육 강사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강의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김성학 강사)', '주의 집중을 위한 SPOT 기법(박수정 강사)'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의를 여는 기법, 마무리 하는 기법 등 특유의 효과적이고 감동적인 방법을 소개해 참여자들이 몰입하게 했다.

특히, 학습자를 만족하게 하는 통편하는 강의를 위해서는 강의기법뿐만 아니라 강자 자신의 에너지 관리도 중요한 역량임을 강조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평생교육 강사는 "강의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동료 강사들과 공감할 수 있었다"며, "특히 강의-매체활용-실습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자 입장 이해를 통해 효과적인 강의기법을 배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첫날 신형이 마감될 정도로 관내 평생교육 강사들의 높은 관심이 있었고, 앞으로 시는 강사 DB 구축 및 강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주=정성범 기자

금산 사랑의 집수리 60호점 탄생

저소득 가정 나눔 실천... 주거환경 개선으로 위생·안정적 생활 도움

금산군은 지난 21일 금산읍 소재 김모씨의 가정에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부장 김관중), 금산주거복지센터(센터장 김순태), 금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성용, 윤연희), 임직원, 마을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방 60호점 입주식을 가졌다.

사랑방만들기 60호점의 주인공은 난방도 잡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다.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는 충남지역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을 선정, 주거환경 개선으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2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부방과 화장실 설치, 주방개조 등 전체적인 리모델링 실시, 새로운 보급자리를 선물했다.

이번에 금산군지역자활센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취·창업한 금산군주거복지센터와 연계, 사랑방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금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00만원 상당의 침대와 책상을 후원했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사랑방 만들기 금산군 1호점 입주식을 가진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랑방 만



들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앞으로도 저소득 가정의

나눔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전정만 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꽃피어라 달순아 (KBS2 오전 9시00분)



재하(최철호)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김집사(김하균)의 등장에 태성(임호)은 불안이 극에 달한다. 현도(권순수)는 집 나가 들어오지 않는 윤재(김정우)를 찾고 좋은 감정을 폭발시킨다. 은솔(엄재영)과 윤재(김정우)는 은솔의 비밀창고에서 행복한 한 때를 보내는데...

달콤한 원수 (SBS 오전8시30분)

달님은 선호의 도움으로 유경의 집에 몰래 들어가지만 병수가 숨기는 바람에 엄마를 찾지 못한다. 세니는 선호가 달님을 도와줬다는 걸 알고 더욱 불

케이블 명화

판타스틱4 (OCN 오후 10시00분)

운명에 맞선 네 명의 슈퍼 히어로들의 등장!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 리드(마일즈 텔러). 저명한 과학자 스톰 박사의 눈에 띄어 과학연구소 벡스터에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발명품을 개발한다.

자신의 발명품을 이용해 연구원인 빅터(토비 캄벨), 스톰박사의 딸인 수(케이트 마라)와 아들 조니(마이클 B. 조던), 그리고 절친한 친구인 벤(제이미 벨)과 함께 무한한 에너지원이 있는 행성으로의 이동을 시도한 리드.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폭발로 인해 네 사람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고, 빅터는 실종된다.

겨우 구조되어 깨어난 이들은 자신의 신체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괴로워한다. 정부와 관군계자들은 그들을 무기로 이용하려 하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네 사람은 강력한 힘, '닥터 둠'으로부터 지구를 구해야만 하는데.....



안해하고, 세강은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달님의 엄마를 달님이 일하는 식당으로 데려가고, 한편, 선호는 세나의 행적에 의구심을 품고 4년 전 근무기록을 재조사 시키는데...

죽어야 사는 남자 (MBC 오후 10시00분)



백작(최민수)이 재산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상처 받은 지영(A강예원)! 백작에 대한 마음이 더욱 커져 사이가 멀어진다. 한편, 지영A가 자신의 딸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려는 백작! 하지만 지영A가 기자회견장에서 사라지는데...

태이큰2 (채널CGV 오후 4시10분)

화끈한 카타르시스 안겨줄 그 남자의 귀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장의 이름으로' 내 가족을 위협하는 자, 가차없이 응징한다!

그를 찾지 말았어야 했다!! 파리에서의 킴(메기 그레이스)의 남치 사건으로 조직에 커명타를 입고, 가족의 목숨까지 빼앗긴 인신매매업 일당은 브라이언(리암 니슨)에게 똑같이 갚아주기 위해 자신들의 조직력을 총동원, 그의 뒤를 쫓는다. 한편, 이스탄불을 여행 중이던 브라이언과 전처 레노어(피케 안느)는 알 수 없는 일당의 기습을 받고 납치되지만, 킴만은 극적으로 놈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

복수의 상대를 잘못 골랐다!! 낯선 도시 이스탄불에서 복면에 가려진 채 어디론가 끌려가는 브라이언. 감감한 어둠 속에 갇힌 그는, 오직 소리에만 의존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간다. 1.2.3...우회전, 1.2.3...갓고등... 1.2.3... 피리소리... 놈들의 감시를 피해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브라이언. 이제, 위기에 빠진 킴과 레노어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전직 특수 요원의 실력을 발휘해 놈들을 역추적하기 시작하는데...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충남대 야구대표팀, 준우승

제1회 황성군수기 전국대학클럽야구대회 참가



충남대 학생들이 전국대학클럽 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8월 17일~21일,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된 '제1회 황성군수기 전국대학클럽야구대회(제3회 전국대학클럽 야구대회)'에서 충남대 대표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고학과) 선수는 최우수투수상을 수상했다.

충남대는 1회를 0-0으로 팽팽하게 맞선 뒤, 2회를 맞아 상대 투수의 난조 속에 6점을 뽑아 앞섰다. 동아대는 바로 2회말 5점을 뽑아내며 바짝 따라 붙었고, 솔로 홈런 등 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점수를 쌓았다. 충남대는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동아대를 괴롭혔지만 1점을 추가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16개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충남대는 예선에서 순전대, 영산대를 꺾은 뒤, 준준결승에서 동아대, 준결승에서 경북대를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동아대는 준준결승에서 충남대에 10-6으로 졌지만 패자결승을 통해 결승까지 오른 뒤 우승을 차지해 아쉬움이 더했다.

충남대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대학 내에 13개 야구클럽이 참여하는 리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회에 출전할 대표팀은 13개 팀에서 선발한 20여명으로 꾸려졌다.

이정복기자

제1회 한·일 태권도

교류 대회 개최

스포츠를 통한 한·일 학생들의 교류의 장이 열린다.

가정세종시 한·일 청소년친선 태권도교류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26일 연서면 월하천로 세종시농어민체육센터에서 '제1회 한·일 태권도 교류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글로벌 시대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넓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해외 청소년들과 친선교류를 통해 태권도 정신과 기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훌륭한 인성을 배우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대회에는 한·일 초·중·고 학생 선수와 임원 등 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기는 오전 9시부터, 개회식은 오전 10시30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이메일 (sang7409@hanmail.net)로 하면 된다. 단, 겨우기 및 품새에 중복 출전은 불가하다.

특히, 이 대회는 일체의 후원 없이 조직위가 순수교류를 목적으로 추진, 개최한다. 주도적인 역할은 태권도계의 전설로 통하는 세종시 금남면 출신인 일본 태권도 협회 기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천구 위원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전 동아대 태권도 학과 겸임교수와 일본 태권도 국가대표 코치·감독을 27년 여간 역임했다. 또 북경 올림픽, 런던 올림픽 일본 태권도팀 감독과 전 세계 태권도 연맹 주니어 분과 부위원장, 전 세계 대학 태권도 협회 부회장, 전 아시아 대학 연맹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청양, 스포츠 대회유치로 지역 활기

제3회 칠갑산배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제3회 칠갑산배 전국배드민턴 대회를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청양군민체육관 및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전국의 배드민턴 동호인 25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청양군과 청양군배드민턴협회(회장 이현갑)가 주최하고 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해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급수별, 연령별 총 93개 종목으로 열린다. 예선전은 리그전으로, 본선은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청양=정성범기자

“춘란 심기·키우기 기초과정 통해 취미를 사업으로”

aT 농식품유통교육원, 춘란 유통관리 과정 교육생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김장래, 이하 교육원은 내달 7일부터 28일까지 4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춘란 유통관리(기초)' 과정을 운영한다. 춘란 재배와 유통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위주로 실시하는 이번 과정은 춘란의 이해와 현황, 춘란 재배 방법, 춘란 관리요령, 그리고 춘란 유통현황 및 상품성 관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며,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2주차부터 실시하는 춘란 심기 실습 후에는 자신이 심은 춘란을 집으로 가져가 키워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도가 기대된다. 교육원은 2015년부터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야간과정으로 선착순 2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케이블 & 위성방송

영화 · 오락 스포츠 · 레저 뉴스 · 다큐 음악 · 애니

Table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like OCN, MBC, YTN, and others.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URL.



설동호 교육감, 서부교육지원청 2017 을지연습 종합상황보고회 참석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22일 오전 10시, 서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7 을지연습 종합상황 보고회에 참석했다.



공주대 학생 6명, 글로벌 현장학습을 떠나다 공주대학교총장직무대리 김희수는 교육부 주관 '2017년 대학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이하 '현장학습사업')에 선정되어 총 6명의 대학생이 캐나다로 현장학습을 떠난다.



건양사이버대학교 KY사진예술연구회 학사모 재능기부 촬영 건양사이버대학교(총장 김희수) KY사진예술연구회가 오는 26일 대전메디칼캠퍼스 리버럴아트홀에서 열린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앞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학사모를 무료로 촬영해주는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 화제다.



에이프릴과 충남RCY 함께하는 알콩달콩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22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 충남 청양군 남천리 비옥마을에서 걸그룹 에이프릴과 충남RCY가 함께하는 농촌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새마을회,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임동규)와 천안새마을회(회장 유영렬)는 22일 천안시 신세계백화점 앞 광장에서 원진희 시의원 회장이 임선신 시부녀회장 및 읍면동별 새마을지도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 절약하는 당산 고맙습니다! 여름철 에너지 절약 절전 시범 캠페인을 전개했다.



환경공단 충청권본부, 2017년 을지연습 소방합동훈련 실시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본부장 김종업)는 2017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22일 공단 청사에서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서천건설본부, 2017 발전소주변지역 육영사업의 일환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시행

서천건설본부(본부장 김광일)는 지난 18일 여름방학을 맞아 2017년 발전소주변지역 육영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소 인근 서도초·서면초 학생 80여명과 함께 '서천건설본부와 함께하는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떠났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영어캠프는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 진행되었으며, 지구촌 생활양식, 홈스테이 체험, 수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낮설 수 있는 영어와 국제문화에 어린이들이 즐겁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김광일 본부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우리 본부가 준비한 이번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학생들의 도·농간 교

육격차가 해소되는 기반이 되는 동시에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건설본부는 올 상반기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금을 전달 및 동백사생대회 개최 등 발전소 주변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하반기에도 주변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장학금 지급 등을 계획하고 있는 등 주변지역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최선의 지원을 다 할 예정이다.

서천=이정복기자

공주문화원, 2017 전통놀이문화 조성·확산사업

'두만리 청소년 서당문화 체험마당'



공주문화원(원장 최창석)이 2017 전통놀이문화 조성·확산 사업 '호시절 미풍양속 함께해요'의 일환으로 오는 24일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도령서당에서 '두만리 청소년 서당문화 체험마당'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공주문화원, 공주도령서당의 공동 주관으로 수백년 동안 이어온 서당의 각종 문화의 소멸과 쇠락을 막고 전통을 이어 나가고자 청소년들에게 서당 문화와 민속을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서당문화체험과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특별놀이마당으로 이루어진다. 본 사업은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체험의 틀을 깨고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위해 시연하고 어른들은 민속을 알려 주며 프로그램이 끝나면 모든 참여자가 풍장을 치며 함께 춤을 추는 노소동락의 대동마당으로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배재대 산학협력단 - (주)팀코리아

글로벌 산학협력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최창원) 배재대 생물약학과 교수과 (주)팀코리아(대표 최정명)는 지난 21일 논산시 가야곡면에 위치한 레이크힐 호텔 팀코레스토랑에서 최창원 배재대 산학협력단장과 최정명 팀코리아 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기술 개발과 사업화 및 전문 인력의 양

성을 통한 대학과 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산학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위탁 연구 및 사업화 수행 ▲ 양 기관이 보유한 연구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 양 기관 소속의 전문 인력 및 경영기술 정보의 공동 활용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장·단기 현장실습 협력 ▲ 상호간의 인프라이니티를 활용한 글로벌 산학협력체계의 구축 ▲ 가족회사의 기업과 구인, 구직 정보제공 등 채용확대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정복기자

충남정신운동청양군협의회

'2017년 효자효부 시상식' 가져

충남정신운동청양군협의회(회장 김도수)는 22일 칠갑산마루청양읍) 연회홀에서 이석화 청양군수, 양기성 군의회의장, 표창수상자 가족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뜻 깊은 공경과 효행정신 계승을 위한 2017년 효자효부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효자상에는 김병문(63·정

양읍), 신언오(53·목면), 김응열(54·장평면)씨가 선정됐다. 효부상은 최영임(57·운곡면), 황서강대(47·대치면), 김순희(37·정산면), 박경국(59·정남면), 최영희(42·남양면), 김연애(56·화성면), 장명자(59·비봉면)씨가 각각 수상했다. 정양=정성범기자



아산시 여성회관 통기타 동아리

'어울림통기타' 연주 봉사활동

아산시(시장 복기왕) 여성회관 통기타 동아리 '어울림 통기타'가 지난 21일, 무더위를 식혀준 감미로운 음악 봉사활동으로 우리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화제다.

여성회관에서 배운 재능을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나눔 문화로 실천하고자 구성된 어울림통기타는 지난 5년 동안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온양온천역 무료급식소에서 통기타를 연주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통기타 어울림 박경희 회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언제 어디든지 찾아가 통기타 선율을 통해 기쁨과 희망을 전하고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시 여성회관 관계자는 "무더위에 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친 이웃의 진정된 벗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연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이었다"며,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더욱더 발전하는 동아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동정 ●

예산시 하계수련대회



유재문 새마을지도자총청남도협의회장

23일 오전 11시 윤봉길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예산시 하계수련대회에 참석 격려.

태안군 하계수련대회



김옥수 총청남도새마을부녀회회장

23일 오전 11시 태안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태안군 하계수련대회에 참석 격려.

태안군 김강민

환경부장관상 수상



태안중학교(교장 노찬호) 3학년 김강민 학생이 지난 19일 서울 북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수원에서 개최된 '제2회 국립공원사랑 프레젠테이션대회'에서 중등부 대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3학년 김강민 학생은 '제2회 국립공원사랑 프레젠테이션대회'에 내가 사랑한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참여했다.

김군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지난 12일 2차 지역 예선을 거쳐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된 후, 최종 결선 진출자들이 모여 열린 결선대회에서 중등부 대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김강민 학생은 이번 프레젠테이션에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함께 전국 국립공원을 탐방한 이야기와 백화산 지킴이로 활동을 토대로 앞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등을 담았다.

특히 뛰어난 표현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에 대해 창의적으로 이야기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태안=김정환기자

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23일 메디체크 건강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본부장 배기웅)는 23일 오후 2시 30분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뇌졸중 등 질환자를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지하1층 보건교육관에서 열린 이번 강좌는 평소 건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열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강좌에서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관리라는 주제 강의와 함께 공금증에 관한 질문과 토의 시간도 갖는다.

송병배기자



신탄진고, 처음 출전... 남자고등·일반부문

제10회 코리아컵 킨볼 전국대회 우승

신탄진고등학교(교장 김성수)는 지난 8월 20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코리아컵 킨볼 전국대회에서 신탄진고 킨볼팀 '신하이'(Shin-high)가 처음 출전해 남자고등·일반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남자고등일반부 12팀(고등 8팀, 일반 4팀)과 여자고등일반부 총 10팀(고등 8팀, 일반 2팀)이 출전했으며, 신탄진고 킨볼팀은 남자고등일반부에서 예선 1위로 준결승에 진출, 준결승에서 2세트 선취로 결승에 올랐다.

또한, 결승에서 신탄진고 졸업생 킨볼동호회 RETURN팀(일반)과 서울 KIN-BALL팀(일반)을 만나 2세트 선취로 우승했다. 이번 우승에서

고등학생이 일반부를 이기며 신탄진고 킨볼팀의 실력을 보여주었고, 2학년 공명배 학생은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발되는 영광을 안았다.

한편, 신탄진고등학교 킨볼팀 '신하이'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일반 학생들이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틈틈이 운동하여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의 우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탄진고등학교는 지난해까지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킨볼대회에서 여고부 3연패, 남고부 2연패를 달성한 바 있으며, 졸업생들은 RETURN 동호회 활동을 이어가며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다.

김정환기자

기고

시설물 하자, 이제는 공유해야 한다



박양호
조달청 공사관리과장

'시설물의 하자'란 부실 시공이 추정되는 회피하고 싶은 단어다. 공공 건축물을 비롯한 아파트, 주택 등의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되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보수하는지 등을 궁금해 하지만 막상 원인분석과 완벽한 보수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연간 약 4700억원의 비용을 시설물 하자 발생 보수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하

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9건에 불과하던 새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신고 건수가 지난해 3880건으로 56배 급증했다고 한다.

설계기법 및 시공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건축이 대형화, 복잡·다양화의 원인으로 있겠지만 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똑같은 유형의 반복적인 하자도 많다. 그동안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사는 대외적으로 이미지 실추와 신용도 하락을 염려해 하자내용을 숨기곤 한다. 아파트 입주 주민이 시공불량과 하자사항을 입주 주민 카페에 올리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계시물 삭제 또는 비공개 전환 요청하는 입주 주민들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행태는 시공사 및 개인의 순간적인 명예와 재산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향후에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하자 발생을 줄이는 건설기술을 발전에는 결

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하자를 예방할 수 있고, 발생한 하자를 잘 보수할 수 있을까? 조달청은 공공분야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조달청은 국내 최초로 '시설물 하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올해 연말쯤 공개할 계획이다. '하자 데이터베이스'에는 공종별, 유형별로 분류코드화된 하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보수방안과 시공단계의 방지대책 등이 포함되며, 매년 지속적으로 자유형 발굴 등 데이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조달청에서 공사관리·준공한 현장의 하자사례 분석을 통해 해당 자료를 작성 및 공개하고, 다른 공공기관,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과 쌍방향 소통으로 하자사례 및 분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개된 자료를 통해 조달청 관리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민간공사 시행 시에도 하자 예방과 하자보수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물 설치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작업자의 숙련도, 기상상황에 따라 하자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예상 가능한 하자를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하자에 정확히 대처해야만 시설물의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하자를 숨길 것이 아니라 좀 더 드러내고 공유하고 함께 고민할 때 유사한 하자 또는 더 큰 하지를 막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건설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조달청의 '시설물 하자 데이터베이스'가 건설사업의 하자 관리를 체계화시키고 건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공공기관과 건설사, 건설사업관리단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기대해 본다.

기고

벌 쏘임 사고 예방, 119가 함께 합니다



이용현
천안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

최근 연일 계속되는 비 소식에도 벌집제거 출동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매년 소방관을 괴롭히는 일들 중 하나가 벌집제거 출동이라고 말하고 싶은 정도다.

말벌은 8-9월이 번식기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데 벌의 크기도 커지고 독성 또한 가장 강해진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말벌집이 생겨나고 말벌에 쏘인 사람들이 많이 발

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천안서북소방서 관할인 천안시 서북구는 충청남도 북부 내륙지역에 위치한 도시·농촌 복합도시로 주변에 서거산, 위례산 등과 접해 있어 벌들이 번식하기에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2017년 천안서북소방서 벌집제거 출동건수는 8월 9일 현재 총 170건으로 7월부터 출동건수가 급증하여 8월에는 하루 평균 5.2건에 이른다. 특히, 말벌이 8-9월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벌집제거 출동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장 출동하는 119화생안전구조대와 119구조대원들에 의하면 벌들은 주로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의 처마, 창틀에 터를 마련하여 벌집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주자들 특히 노인 및 아이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9월부터는 곧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가족단위로 산소를 찾아 성묘와 별초를 많이 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벌 쏘임 사고 예방법과 벌에 쏘였을 때 대처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벌집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큰 동작을 삼가고 최대한 몸을 낮추어 목과 얼굴을 가려야 한다.

둘째, 벌들은 번식기에 더욱 예민해져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향이 진한 화장품이나 향수를 피하는 것이 좋다.

셋째, 벌의 공격을 받았을 시 당황하지 말고 재빨리 현장을 벗어나야 더 많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넷째, 벌에 쏘여 벌집이 남았다면 카드로 벌집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로 씻거나 얼음찜질을 해야 하며 헝기증이나 마비,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동반될 경우 기도유지를 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벌의 독에 알리지성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과민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급격한 호흡곤란을 일으키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인지시켜 응급상황 시 119구급대

원이나 병원에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의 경우 알려지성 과민반응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운 자세를 유지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하며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아울러 주의해야 할 것은 스프레이 살충제 등에 벌을 붙여 벌집제거를 시도하다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벌집제거는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주의사항만으로도 말벌로부터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휴가철 안전환 활동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천안서북소방서 전 대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나 소방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천안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다.

기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아시나요?



석정훈
아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상황2팀장

운전을 하다보면 시내 주요 교차로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신호기가 설치된 4거리 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 중앙에 교통섬을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이 차량들이 교차로 내를 회전하여 원하는 곳으로 나가도록 하는 교차로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차량이 회전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도록 설계

된 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라고 하는데 이 회전교차로의 특징과 통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자동차가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원하는 곳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식의 교차로를 말하는 것으로 회전교차로에는 4거리 교차로와는 다르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호기 설치, 유지, 보수비용이 들지 않는다. 신호대기가 없어 교차로의 진입 대기시간이 짧아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교통섬이 장애물 역할을 해주어 속도를 줄이는 효과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는 국민안전처에서 회전교차로를 설치 전·후를 비교분석한 결과(2017. 2.14. 발표)를 보면 알 수 있

는데, 교통사고는 설치 전보다 59% 감소하였고, 교통사고 사상자수도 6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안정성과 교통소통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461개소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23개소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회전교차로를 처음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불편함과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불만을 나타낸다. 기존 4거리형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 익숙해져 있는 운전자들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생소한 회전교차로에 맞추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며, 중요한 것은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즉 통행원칙을 알아보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교차로 내 회전하고 있는 차

량에 양보해야 한다. 즉, 교차로 내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교차로 내 회전차량이 지나간 후 교차로 내로 진입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회전교차로를 회전하여 원하는 곳으로 나가는 진출차량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서 다른 차량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회전교차로 내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진행하다가 목적지로 나가게 되었을 때는 다른 차량에게 교차로에서 나간다는 표시를 우측 방향지시등을 통해 알려주어야만 본인 차량 및 다른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상 회전교차로의 특징과 통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기존 4거리 교차로와는 다른 통행체계를 갖춘 회전교차로지만 교차로의 특징과 통행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 회전교차로 통과 시에 별 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사설

노동력 부족 대비 필요하다

고령화로 우리나라가 이르면 10년 후부터 본격적인 노동력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2050년 경제활동인구는 현재보다 13%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니 걱정이 크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지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앞으로 10~15년 후인 2030년께부터는 노동부족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2050년에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인구, 총근로시간이 각각 현재의 87%, 88%, 8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작년 기준 2천811만 명에서 2050년 2천449만 명으로 362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성별·연령별로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노

동시간, 노동생산성 등 노동공급지표가 2016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를 담았다.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이유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인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3천760만 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에는 2천590만 명으로 3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보고서는 당장 노동공급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해 출생 규모는 60만~70만 명을 유지했지만 2002년부터 40만 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본격화하는 시기가 그리 멀지 않았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이 심화하기 전에 대책을 부심해야 할 것이다.

여권의 수도권규제완화 법안은 지방소멸 부른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안을 내놓고 있다. 수도권, 특히 경기도 지역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 법안은 수도권정비

계획법 개정안이나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별도의 개정안 혹은 특별법 등의 명목으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발전을 표방한다. 하지만

집권 여당 의원들의 이러한 법안 발의는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역구 민원 영합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문제인정부의 국정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들 법안은 기득권이나 심화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켜 중국에는 지방의 소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폐기돼야 마땅하다.

비수도권 주민과 정치인들은 무엇보다 수도권 의원의 집단이기와 소외적 지역주의 발상을 온 몸으로 봉쇄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떻게 집권 여당만 되면 수도권 정치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규제완화를 들고 나오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자주 개정되는 바람에 이미 누더기법안으로 전락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마당이다. 수도권은 더 이상 규제완화를 하지 않아도 이미 포화상태이고, 낙후했다는 점적지역 또한 수도권 내에서 상대

적인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비수도권에 비해서 투기 광풍까지 휩쓸고 있는 핫플레이스 아닌가.

수도권 의원들은 개정안 통과를 획책하기에 앞서 국가와 국토를 균형잡힌 시각에서 바라보는 식견부터 기르기를 바란다. 비수도권 내 지역 사이 불균형은 조만간 특정 지역의 소멸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처지다. 수도권규제완화는 못 안되는 비수도권 우량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김진표 의원이 연내에 발의하기로 알려지고 있는 특별법 역시 말이 좋아 해외로 이전할 대기업에 특별 혜택을 적용해 국내에 잡아두자는 전략이지, 실상은 지방의 중견기업과 대기업 계열사를 수도권으로 이전케 하는 제삼 뜯어먹기식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환경의 악화로 해외 이전을 계획한 기업이라면 수도권 보다는 오히려 비수도권에 오도록 해야 임금, 토지 등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상식이다.

수도권은 상대적 낙후를 우려하지만 비수도권은 생선 불가, 불모를 걱정한다. 문제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균형발전이라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은 어떠한 명분도 설리도 갖기 어렵다. 비수도권의 몰락을 유도할 수도권규제완화 입법은 지방 죽이기 입법이나 다름없다.

오늘의 소사
[Content area with various news snippets and a table]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비즈니스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ntact information and submission guidelines]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선서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망설이지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 하나.** 우리는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몸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주 관 |

DT 大田투데이

DTN